

# 청소년의 사회적 삶과 태도

金 璞 東\* · 薛 東 勳\*\*

〈목 차〉	
I. 머리말	V. 청소년의 여가생활
II. 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	VI. 청소년의 교육, 직업 및 일 에 대한 태도
III. 청소년의 가정생활	VII. 맷음말
IV. 청소년의 학교생활	

## I. 머리말

19세기의 산업혁명과 그 이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공업화·도시화는 해당 사회의 각 부문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각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이 출현하였다. 공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부각된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실제로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인간 발달단계 중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 어린이가 부모의 일을 보고 배우며 거드는 것이 바로 경제활동 참가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시기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내용과 양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이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청소년기가 대두하게 되었다. 즉 공업화와 도시화, 정규 교육 및 취업 준비 기간의 연장 등의 요인 때문에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 단계 중 중요한 한 시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조홍식a, 1994).

그런데,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인 면에서 성장 과정에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성숙되어 있지 못하므로 사회변동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집단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사회학.

시기”로 불리워진다. 청소년들은 그만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격렬한 반항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정서와 행동양식은 그들의 사회적 삶과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 때문에 기성 세대는 종종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춘기적 감정 내지 일탈행동으로 취급해버리기도 한다.

물론 언제 어느 사회든 청소년들의 문화에는 기성 문화에 대한 대항문화 혹은 반문화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청소년 문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들 나름의 합리성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성 세대의 것대만 가지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삶과 태도를 재단하려고 한다면 이들의 정서와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올바른 청소년 정책의 수립이나 실시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삶과 태도를 “고착화된” 기성 세대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의 처지와 관점에서 파악하는 내재적 접근법(intrinsic approach)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들의 주된 사회적 삶의 공간은 가정과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로 이루어진다. 이 영역에서 그들은 가정생활·학교생활·여가생활을 영위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한국인으로서 독특한 사회적 태도를 갖고 있는데, 교육과 직업 및 일에 대한 태도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사회적 삶과 태도를 그들의 시각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Ⅱ. 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이란 특정 시기에 고정된 사회 집단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집단인데,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거쳐 가는 연령 집단이다. 그런데,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 사실 청소년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1986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UNESCO는 청소년을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한다. 이는 초등교육을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부터 대략 대학을 졸업할 무렵의 연령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필자들은 국제적 관행에 따라 청소년을 사춘기와 청년기를 포괄하는 연령층, 즉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층에 속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필자들이 개념 설정한 청소년에는 이 연령층에 속하는 다양한 집단들—예컨대, 중학생·인문고교생·실업고교생·전문대학생·대학생·근로청소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실제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이 연령층 남녀의 대다수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근로청소년을 포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을 별도로 표집하였다.

표집 대상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으로 구분하였고, 동시에 도시·농촌 인구 비율을 감안하였다. 표집단위는 먼저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직업훈련원·직업학교 등의 각급 학교를 표본 추출의 중간 단위(조사구)로 설정하여 계통표

〈표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변수값	백분율	사례수	변수	변수값	백분율	사례수
성	남자	55.0	880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28.8	428
	여자	45.0	720		사무직	19.5	289
연령	13~15세	38.1	609		판매·서비스직	16.9	251
	16~18세	37.9	6.7		생산직	17.2	255
	19~21세	16.2	259		농림어업직	14.6	217
	22~24세	7.8	125		미취업	3.0	44
				어머니 직업	전문·관리직	3.6	52
각급 학교	중학교	35.6	569		사무직	3.8	56
	인문고교	22.2	355		판매·서비스직	17.5	255
	실업고교	14.3	229		생산직	4.9	71
	전문대학	5.6	90		농림어업직	8.6	126
	대학교	16.1	258		미취업	61.6	898
	직업훈련원	6.2	99	성장 지역 규모	대도시	53.9	862
형제 서열	독자	2.8	45		중소도시	20.4	327
	첫째	35.8	573		읍	13.2	211
	중간	25.7	411		면 이하	12.5	200
	막내	34.3	549	거주 지역	서울	25.7	411
가족 소득	71만원 이하	14.3	214		인천·경기·강원	19.6	314
	72~95만원	10.7	161		대전·충남·충북	10.8	172
	96~119만원	16.0	240		광주·전남·전북	13.8	220
	120~143만원	15.4	231		대구·경북	12.4	199
	144~167만원	10.5	158		부산·경남	17.8	284
	168~239만원	17.5	262		계	100.0	1,600
	240만원 이상	15.5	233				

집의 방식으로 조사 대상 학교를 추출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는 해당 시·도내의 각급 학교 소재지를 고려하여, 韓國學校名覽編纂會의 『한국학교명람』 1992~1993』에서 계통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조사 대상자는 해당 학교에서 각 학년 비율을 같게 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표집을 위해 사용된 모집단에 대한 자료는 교육부 중앙교육평가원의 『1991년 교육통계연감』에서 구하였다.

실제 조사는 1993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에 걸쳐 이루어졌고, 1,600명이 표집되었다. <표 2-1>에 조사에 응한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설은 생략한다.

### III. 청소년의 가정생활

가족은 청소년이 사회 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성장과 인격 발달,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가족은 개인의 인성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초기 사회화를 담당한다. 가족은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인 도덕과 질서·규율 등을 배우고, 무엇보다 의미있는 인간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학습의 장이 된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가정 생활은 1960년대 이후 공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였다. 급속도로 전개된 공업화·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의 대표적 가족 유형은 전통적 형태의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급속하게 바뀌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가족 성원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소가족화가 진행되었다.

#### 1. 청소년의 가족 구성

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평균 3.03명의 형제자매를 갖고 있는데, 남자 형제가 1.49명, 여자 형제가 1.54명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평균 형제 수가 3명 이상이라는 사실은, 아직은 평균 형제 수가 2명에 못미치는 극단적인 소가족화로는 진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형제 수가 적어져, 13~15세 연령층 청소년은 자신을 포함하여 평균 2.72명의 형제가 있을 뿐이다(표 3-1). 이로써 우리는 앞으로 소가족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2>에서 형제 서열 유형은 첫째가 36.3%, 막내가 34.8%, 중간이 26.0%, 독자가 2.9%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첫째와 막내의 비율

〈표 3-1〉 연령별 평균 형제 수

(단위: 명)

연령 형제 수	13~ 15세	16~ 18세	19~ 21세	22~ 24세	전체	집단간 평균 차이 검정 (F-test)
전체 형제 수	2.72	3.13	3.31	3.42	3.03	F=25.47 p<.001
남자 형제 수	1.36	1.49	1.59	1.86	1.49	F=14.15 p<.001
여자 형제 수	1.36	1.64	1.72	1.56	1.54	F= 7.46 p<.001

〈표 3-2〉 연령별 형제서열 유형

(단위: %)

연령 형제서열	13~15세	16~18세	19~21세	22~24세	전체
독자	4.7	2.2	0.8	1.6	2.9
첫째	39.4	36.3	33.2	28.0	36.3
중간	19.8	28.3	29.3	38.4	26.0
막내	36.2	33.2	36.7	32.0	3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 37.14 \quad d.f. = 9 \quad p < .001$$

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중간의 비율이 높다. 청소년의 평균 형제 서열은 2.12짜다. 형제 서열을 성별로 세분할 때,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1남 1녀형으로 전체의 20.2%에 달한다. 그 다음은 1남 2녀형(14.6%), 2남 1녀형(14.0%), 2남 0녀형(12.3%), 1남 3녀형(6.7%)의 순이다.

형제자매 구성과 출생 서열 및 성을 포괄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례는 2남 0녀 중의 첫째 아들(7.7%)이고, 다음은 1남 1녀 중의 첫째 아들(6.2%), 1남 1녀 중의 첫째 딸(5.6%), 2남 0녀 중의 둘째 아들(4.6%), 1남 1녀 중의 둘째 딸(4.4%), 1남 2녀 중의 둘째 딸(4.1%), 1남 1녀 중의 셋째 딸(3.7%), 2남 1녀 중의 둘째 아들(3.5%), 2남 1녀 중의 셋째 아들(3.4%), 1남 2녀 중의 첫째 딸(3.3%)의 순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형제 수가 많을수록 여자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형제 수별 여자 비율 지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 가능하다. 하나는 “형제 수별 응답자가 여자인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가족 내 형제들 중의 여자 비율의 평균값”이다. 〈표 3-3〉에 따르면, 두 지표 모두 형제 수가 많을수록 여자의 비율이 높다. 이는 한국인들의 남아선호로 인하여 남자 아이를 얻을 때까지 출산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표 3-3〉 형제 수별 여자 비율

(단위: %)

형제수 지표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체	집단간 평균 차이 검정
응답자가 여자인 비율	21.7	35.8	48.9	56.2	45.3	F=25.47 p<.001
형제 중 여자의 비율	19.6	37.4	49.0	60.5	47.0	F=14.15 p<.001
사례 수	46	565	558	413	1,582	

〈표 3-4〉 연령별 핵가족-확대가족 분포

(단위: %)

연령 형제서열	13~15세	16~18세	19~21세	22~24세	전체
핵 가 족	81.8	84.4	92.3	90.6	85.1
확대가족	18.2	15.6	7.7	9.4	1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4.22 \quad d.f.=3 \quad p<.001$$

만약 이러한 성비(sex ratio) 불균형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가족화와 남아과잉 현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의 하나는 핵가족화다. 〈표 3-4〉에서 핵가족-확대가족의 분포를 보면, 핵가족이 85.1%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데 반해, 확대가족은 14.9%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확대가족의 비율이 낮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 생활 주기(family life cycle)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된다. 즉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조부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청소년의 부모가 조부모로부터 분가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가족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공업화와 더불어 진행된 핵가족화·소가족화의 추세를 타고 잇달아 나타난 현상이 개인화의 진전이다. 이러한 현상의 한 지표로서 전체 청소년의 54.1%가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표 3-5). 독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인문고교생(66.4%)이고, 다음이 대학생(61.2%) 전문대학생(61.1%)의 순이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실업고교생(44.7%)과 중학생(45.4%)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의 성과로 인해 가정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자녀들에게도 독방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입시 준비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방 배정을 하기 때문에

〈표 3-5〉 각급학교별 함께 방을 사용하는 사람

(단위: %)

각급학교 동거인	중학교	인문고교	실업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직업훈련원	전체
없음	45.4	66.4	44.7	61.1	61.2	56.8	54.1
형제	44.5	30.8	45.6	32.2	30.2	29.5	37.7
직계 존속	6.6	1.7	5.7	4.4	0.8	9.5	4.5
기타	3.5	1.1	3.9	2.2	7.8	4.2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90.35 \quad d.f.=15 \quad p<.001$$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독방 사용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한다.

독방을 쓰지 않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그들의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데, 형제들과 함께 방을 사용하는 비율은 실업고교생과 중학생이 각각 45.6%와 44.5%로 가장 높다. 청소년의 90% 이상이 독방 내지 형제와 방을 사용하고 있고, 조부모님 혹은 부모님과 함께 방을 사용하는 집단으로는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9.5%)과 중학생(6.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요컨대 한국 청소년 가족 구성의 특징은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가족 성원수가 5명 정도인 소가족이며, 남아선호가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쳐 성비 왜곡 현상이 점증하고 있으며, 가족의 부의 증대와 입시 열기로 인하여 독방 사용 청소년의 비율이 증대하여 개인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 2.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이러한 가족 구성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필자들은 한국의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문항 8개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찬반의 정도를 물어보았다(표 3-6).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지표는 ① 윗어른 공경이라는 윤리적 차원의 보수주의(conservatism)-진보주의(liberalism)를 측정하기 위한 “이웃 어른에 대한 인사”와 “버스 자리 양보”的 두 문항과, ② 가부장제적 남성우월주의 및 君師父一體로 대표되는 문화적 차원의 보수주의-진보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아버지의 의견 우선”과 “교사와 부모의 동일시”的 두 문항, ③ 확대가족과 장자 우선의 가치관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차원의 보수주의-진보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장남의 부모 봉양”과 “확대가족에 대한 선호”的 두 문항, 그리고 ④ 집단 이익과 개인

〈표 3-6〉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단위: %)

태 도	전적으로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무응답	계
이웃 어른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해야 한다	39.8	41.9	11.2	4.1	1.4	1.7	100.0
버스 속에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 반드시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	41.1	39.4	11.2	4.7	2.0	1.6	100.0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집안 어른들의 체면을 깍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14.6	36.9	19.1	19.3	8.6	1.5	100.0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18.6	24.9	28.8	18.4	7.6	1.6	100.0
개인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할아버지·할머니·삼촌·고모 모두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11.9	21.6	25.2	26.4	13.7	1.3	100.0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시켜도 된다	6.3	26.9	27.1	26.6	11.9	1.2	100.0
선생님은 부모님과 다름 없으므로 복종해야 한다	6.8	23.9	22.9	32.9	12.2	1.4	100.0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	2.5	7.3	32.2	33.0	23.3	1.7	100.0

이익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는 집합주의(collectivism)-개인주의(individualism)의 대립을 측정하기 위한 “집안 어른들의 체면 중시”와 “나라 위한 개인 희생”의 두 문항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의 찬성률이 높은 문항들은 “이웃 어른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해야 한다”(윤리: 81.7%), “버스 속에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 반드시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윤리: 80.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집안 어른들의 체면을 깍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집합: 51.5%)이고, 그 다음은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사회: 43.5%), “개인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할아버지·할머니·삼촌·고모 모두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사회: 33.5%),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시켜도 된다”(집합: 33.2%), “선생님은 부모님과 다름 없으므로 복종하여야 한다”(문화: 30.7%),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문화: 9.8%)의 순이다. 즉 청소년들은 윤리적 차원의 전통에는 80% 이상이 동조하지만, 집합주의적 전통과 사회적 차원의 전통에는 33~52% 정도가 찬성하며, 문화적 차원의 전통에는 70~90%가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찬성한다”와 “찬성하는 편이다”를 묶어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찬성의 정도 및 반대의 정도가 무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 3-7〉에서는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점수를 계산하였다. 그것은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전적으로 찬성한다”에 2, “찬성하는 편이다”에 1,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에 0, “반대하는 편이다”에 -1,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2의 값으로 재부호화하여, 산술 평균을 구한 값이다. 청소년의 전통적 태도는 앞의 〈표 3-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순서로 분포하고 있다. 즉 “이웃 어른에 대한 인사”와 “버스 자리 양보”는 찬성 쪽에 위치하고, “집안 어른들의 체면 중시”와 “장남의 부모 봉양”은 중간에 가까운 쪽에 있지만, “확대가족에 대한 선호”와 “나라 위한 개인 희생”과 “교사와 부모의 동일시” 및 “아버지의 의견 우선”은 반대 쪽에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는 어느 정도

〈표 3-7〉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점수

순위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태도 점수	
		평균	표준편차
1	이웃 어른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여야 한다	1.17	0.88
2	버스 속에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 반드시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	1.15	0.94
3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집안 어른들의 체면을 깍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0.30	1.19
4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0.29	1.19
5	개인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할아버지·할머니·삼촌·고모 모두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0.09	1.23
6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시켜도 된다	-0.11	1.13
7	선생님은 부모님과 다름 없으므로 복종하여야 한다	-0.20	1.14
8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	-0.68	1.00

주: 태도 점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를 2, “찬성하는 편이다”를 1,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를 0, “반대하는 편이다”를 -1, “전적으로 반대한다”를 -2의 값으로 재부호화(recode)하고, 무응답을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3-8>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성, 연령, 각급 학교, 형제 서열, 가족 소득, 아버지 직업, 거주 지역 및 성장 지역 규모이고, 집단간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t-검정과 분산분석의 F-검정으로 살펴보았다. 다음부터는 전통적 태도 문항별로 그 차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웃 어른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찬성률이 높고, 광주·전남·전북 청소년이 다른 지역 청소년보다 찬성률이 높다.

둘째, “버스 속에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 반드시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생과 인문고교생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의 찬성률이 비교적 낮으며, 광주·전남·전북과 대전·충남·충북 청소년의 찬성률이 높다.

셋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집안 어른들의 체면을 깍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찬성률이 높고, 직업훈련원·직업 학교생, 실업고교생, 전문대학생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산·경남과 인천·경기·강원 청소년의 찬성률이 높다.

넷째, 우리 사회에서 노부모에 대한 봉양 책임은 당연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찬성률이 훨씬 높고, 직업훈련원·직업 학교생과 전문대학생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섯째,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가 공업화 이후 세대인 청소년들에게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확대가족에 대한 평가 문항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할아버지·할머니·삼촌·고모 모두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남자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여자는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형제 서열별로는 독자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반대 비율이 높은데 특히 중간의 반대율이 높다. 가족 소득별로는 119만원 이하 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으나, 120~142만원 소득층은 반대율이 가장 높은데,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반대율이 높다. 특별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집단은 다른 집단들보다 가정에서의 정서적 만족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층인데, 이들은 따뜻한 혈연적 유대를 상대적으로 더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일종의 극단적 형태의 집합주의적 가치관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표 3-8〉 사회 인구학적 변수별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점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이웃 어른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여야 한다	버스에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가문을 위하여 그만 두어야 한다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개인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다라도 확대가족이 좋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을 회생시켜 도 된다	선생님은 부모님과 달리 복종하여야 한다	부모 의견 상충 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
전체	1.17	1.15	0.30	0.29	-0.09	-0.11	-0.20	-0.68
성 남자	1.12	1.13	0.46	0.51	0.10	-0.09	-0.11	-0.46
여자	1.22	1.17	0.11	0.02	-0.32	-0.13	-0.31	-0.96
(t값)	-2.10*	-0.84	5.71***	8.42***	6.85***	0.57	3.42**	10.27***
연령								
13~15세	1.19	1.14	0.36	0.29	-0.07	0.06	-0.21	-0.68
16~18세	1.17	1.16	0.30	0.29	-0.06	-0.04	-0.18	-0.74
19~21세	1.11	1.16	0.19	0.31	-0.10	-0.43	-0.26	-0.68
22~24세	1.16	1.10	0.24	0.25	-0.28	-0.59	-0.15	-0.42
(F값)	0.48	0.20	1.36	0.07	1.40	20.53***	0.58	3.74*
각급 학교								
중학교	1.19	1.12	0.37	0.29	-0.06	0.07	-0.24	-0.68
인문고교	1.20	1.24	0.20	0.20	-0.18	-0.11	-0.22	-0.75
실업고교	1.18	1.17	0.45	0.37	0.10	0.03	0.00	-0.72
전문대학	1.29	1.26	0.44	0.49	-0.08	-0.09	0.07	-0.48
대학교	1.08	1.12	0.06	0.16	-0.22	-0.72	-0.33	-0.68
직업훈련원	1.00	0.88	0.47	0.59	0.03	0.09	-0.26	-0.62
(F값)	1.89	2.95*	4.28**	2.84*	2.17	19.83***	3.12**	1.06
형제 서열								
독자	1.16	1.26	0.23	0.23	0.09	-0.19	-0.42	-0.74
첫째	1.19	1.16	0.37	0.35	-0.01	-0.11	-0.12	-0.65
중간	1.09	1.18	0.26	0.20	-0.22	-0.19	-0.25	-0.73
막내	1.20	1.10	0.26	0.27	-0.09	-0.06	-0.24	-0.68
(F값)	1.30	0.73	1.24	1.26	2.56*	1.15	2.08	0.45
가족 소득								
71만원 이하	1.14	1.12	0.32	0.37	0.03	0.09	-0.10	-0.69
72~95만원	1.32	1.24	0.32	0.39	-0.03	0.04	-0.15	-0.59
96~119만원	1.07	1.09	0.45	0.33	0.05	-0.16	-0.14	-0.65
120~143만원	1.12	1.13	0.25	0.27	-0.30	-0.17	-0.26	-0.72
144~167만원	1.15	1.18	0.22	0.27	0.07	-0.11	-0.08	-0.56
168~239만원	1.18	1.21	0.27	0.14	-0.15	-0.15	-0.18	-0.75
240만원 이상	1.16	1.03	0.32	0.19	-0.19	-0.30	-0.41	-0.70
(F값)	1.42	1.26	0.80	1.38	2.86**	2.77*	2.18*	0.82

사회 · 인구학 적 변수	이웃 어 른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여 야 한다	버스에서 나이가 많은 분 에게 자 리를 양 보해야 한다	내가 하 고 싶은 일도 가 문을 위 하여 그 만 두어 야 한다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부 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개인 생 활에 불 편한 점 이 있더 라도 확 대가족 이 좋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시켜 도 된다	선생님 은 부모 님과 다 름 없으 므로 복 종하여 야 한다	부모 의 견 상충 시 아버 지의 뜻 에 따라 야 한다
아버지 직업								
전문 · 관리직	1.14	1.13	0.27	0.26	-0.16	-0.24	-0.26	-0.67
사무직	1.11	1.11	0.34	0.20	-0.12	-0.10	-0.29	-0.66
판매 · 서비스직	1.19	1.14	0.35	0.26	-0.14	-0.23	-0.21	-0.79
생산직	1.21	1.25	0.28	0.37	-0.01	-0.01	-0.05	-0.69
농림어업직	1.29	1.16	0.29	0.35	0.05	0.17	-0.12	-0.62
미취업	1.14	1.16	0.16	0.20	-0.20	-0.57	-0.34	-1.07
(F <sub>3</sub> )	1.28	0.75	0.34	0.78	1.02	5.46***	1.67	2.07
거주 지역								
서울	1.06	1.03	0.14	0.19	-0.19	-0.25	-0.41	-0.82
인천 · 경기 · 강원	1.16	1.13	0.44	0.27	0.00	-0.04	-0.23	-0.72
대전 · 충남 · 충북	1.20	1.24	0.17	0.23	-0.23	-0.17	-0.23	-0.65
광주 · 전남 · 전북	1.34	1.30	0.26	0.33	-0.08	-0.17	-0.09	-0.63
대구 · 경북	1.13	1.11	0.34	0.34	-0.09	0.07	-0.09	-0.63
부산 · 경남	1.20	1.17	0.47	0.43	0.04	-0.03	-0.02	-0.55
(F <sub>3</sub> )	2.99*	2.69*	4.04**	1.74	1.79	2.73*	5.50***	2.94*
성장 지역 규모								
대도시	1.12	1.10	0.26	0.28	-0.12	-0.18	-0.28	-0.70
중소도시	1.18	1.25	0.30	0.30	-0.10	-0.17	-0.11	-0.73
읍	1.28	1.14	0.43	0.25	-0.09	0.05	-0.09	-0.65
면 이하	1.22	1.21	0.32	0.36	0.08	0.12	-0.14	-0.60
(F <sub>3</sub> )	1.96	2.34	1.07	0.31	1.11	5.00**	2.89*	0.62

\*p&lt;.05 \*\*p&lt;.01 \*\*\*p&lt;.001

는 개인을 희생시켜도 된다"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은데, 다만 13~15세 청소년층만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점이 흥미롭다. 각급 학교별로는 직업훈련원 · 직업학교생과 중학생, 실업고교생은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 집단은 반대의 비율이 높은데 특히 대학생의 반대율이 높다. 가족 소득별로는 95만원 이하 소득층에서만 찬성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반대 비율이 높다.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주의적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 집단만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집단은 반대의 비율이 높은데 특히 미취업 · 전문기술직 · 사무직 집단의 반대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대구 · 경북 청소년만 찬성 비율이 높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 높은데 특히 서울 청소년들의 반대율이 높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 단위 농촌 지역 청소년은 찬성 비율이 높으나, 대도시·중소도시 지역에서는 반대 비율이 훨씬 높다. 이처럼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관념은, 청소년의 자기 표현주의(expressionism)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청소년이 사회와 국가의 집합적 이익을 위해 희생당해 온 것이 사실이고, 청소년 자신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성장과 발전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존중, 즉 민주주의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선생님은 부모님과 다름 없으므로 복종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강하게 반대한다. 각급 학교별로는 실업고교생과 전문대학생은 중간에 가까우나, 나머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반대율이 높고, 서울 청소년의 반대율이 특히 높고, 대도시 출신 청소년들의 반대율이 높다.

여덟째, 조선시대 아래 우리 사회의 지배 윤리였던 유교에 바탕을 둔 남성 위주의 사회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에 대한 찬반 정도를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강하게 반대하며,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율이 높은데 특히 16~18세 연령층의 반대율이 높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청소년의 반대율이 특히 높다. 반대 응답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누구의 의견인가보다는 어느 의견이 더욱 타당한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이로써 남성 위주의 사고는 크게 바뀐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별 문항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청소년이 전통적 생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자료 제시의 간결성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이란 여러 문항들이 몇 가지 공통적 요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공통 요인을 찾아내려는 통계학적 기법의 일종이다. <표 3-9>에는 분산극대화(VARIMAX) 방식으로 직교회전을 한 후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두 가지 요인을 추출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분산의 누적 백분율은 요인 1이

〈표 3-9〉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점수를 직교회전한 후의 요인행렬표

요인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변수들	전체 동의도 순위	요인부하값		공통 분산비 ( $h^2$ )
			요인 1	요인 2	
요 인 1	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	8	.711	-.212	.551
	② 선생님은 부모님과 다름 없으므로 복종하여야 한다	7	.600	.162	.386
	③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집안 어른들의 체면을 깎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3	.599	.139	.378
	④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4	.519	.346	.390
	⑤ 개인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할아버지 · 할머니 · 삼촌 · 고모 모두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5	.496	.183	.279
	⑥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시켜도 된다	6	.424	.080	.186
요 인 2	① 이웃 어른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여야 한다	1	.117	.827	.697
	② 버스 속에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 반드시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	2	.125	.808	.669
고유값(Eigen value)			2.330	1.206	
설명하는 분산의 백분율(%)			29.1	15.1	
설명하는 분산의 누적 백분율(%)			29.1	44.2	

29.1%이고, 요인 2는 15.1%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의 공통적인 면을 찾아, 요인 1은 “가부장제(patriarchy)에 대한 태도”로, 요인 2는 “연령 위계제(age hierarchy)에 대한 태도”로 명명하였다. 우리의 전통적 생활에서 가부장제적 요소가 한 축에 있고, 다른 한 축에 윗어른에 대한 공경이라는 요소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요인을 이용하여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척도를 구성하였는데, 그것은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s)이 높은 변수들만을 추려 그것들의 산술평균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2, “찬성하는 편이다”는 1,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는 0, “반대하는 편이다”는 -1,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2의 값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3-10〉을 통하여, 이러한 요인 점수들이 사회 · 인구학적 변수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부장제적인 전통 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남자는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데 반해 여자는 반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연령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각급 학교별로는 전문대학생, 실업고교

〈표 3-10〉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전통적 생활에 대한 태도 요인 점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부장제 (patriarchy)	연령 위계제 (age hierarchy)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부장제 (patriarchy)	연령 위계제 (age hierarchy)
전체	-0.08	1.16	72~95만원 96~119만원 120~143만원 144~167만원 168~239만원 240만원 이상 (F값)	-0.01 -0.02 -0.15 -0.03 -0.13 -0.19 3.14**	1.28 1.08 1.12 1.16 1.20 1.09 1.47
성					
남자	0.07	1.13			
여자	-0.26	1.19			
(t값)	10.14***	-1.65			
연령					
13~15세	-0.04	1.16	아버지 직업		
16~18세	-0.07	1.16	전문·관리직	-0.13	1.14
19~21세	-0.16	1.13	사무직	-0.11	1.11
22~24세	-0.15	1.13	판매·서비스직	-0.13	1.17
(F값)	2.41	0.11	생산직	-0.02	1.23
			농림어업직	0.01	1.22
각급 학교			미취업	-0.30	1.15
중학교	-0.04	1.15	(F값)	2.90*	0.93
인문고교	-0.14	1.22			
실업고교	0.04	1.18	거주 지역		
전문대학	0.05	1.28	서울	-0.23	1.05
대학교	-0.29	1.10	인천·경기·강원	-0.05	1.14
직업훈련원	0.03	0.94	대전·충남·충북	-0.14	1.22
(F값)	8.78***	3.08***	광주·전남·전북	-0.06	1.32
			대구·경북	-0.01	1.12
형제 서열			부산·경남	0.06	1.18
독자	-0.13	1.21	(F값)	7.54***	3.87**
첫째	-0.03	1.18			
중간	-0.15	1.13	성장 지역 규모		
막내	-0.09	1.15	대도시	-0.12	1.11
(F값)	3.06*	0.37	중소도시	-0.08	1.22
			읍	-0.01	1.21
가족 소득			면 이하	0.02	1.21
71만원 이하	0.00	1.13	(F값)	3.12*	2.14

\*p<.05 \*\* p<.01 \*\*\* p<.001

생,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은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높고, 대학생과 인문고생은 반대 비율이 훨씬 높다. 형제 서열별로는 중간과 독자의 반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반대율이 높으며, 아버지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은 중간에 가깝지만, 나머지는 모두 반대의 비율이 높은데 특히 미취업과 전문·관리직의 반대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 청소년만이 유독 찬성 비율이 약간 높고, 나머지 지역은 반대 비율이 높은데 특히 서울 청

소년의 반대율이 높다. 성장 지역 규모별로는 농촌 청소년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도시 청소년은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둘째, 연령 위계제적인 전통 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생과 인문고교생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주·전남·전북 청소년들의 찬성률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성·연령·형제 서열·가족 소득·아버지 직업·성장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대, 청소년들은 가부장제적 전통 생활 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반면, 연령 위계제적인 전통 생활 태도에 대해서는 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우월주의” 및 “선생님에 대한 일방적 복종”은 배격하고, 그 대신에 남녀 평등주의와 합리주의를 신봉 한다. 그리고, “가족의 체면을 중시하는 풍조”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이에 동의하는 비율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데, 이는 청소년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로서 가족이나 친족이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인듯 하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변질되면 가족중심의 이기주의를 낳게 된다. 가족 내의 결속이 이웃과 사회로 널리 확대되는 폭넓은 집단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집의 이익만 챙기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장님의 부모 봉양” 및 “학대가족 선호”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많이 약화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보다는 가족과 자기 위주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웃 어른에 대한 인사”나 “버스 자리 양보”와 같은 연령 위계제적 전통 생활 태도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들은 가부장제적 전통 생활 태도는 혁신되어야 할 대상으로, 연령 위계제적 전통 생활 태도는 계승·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IV. 청소년의 학교생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학교 생활은 가정 생활 만큼이나 중요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를 거의 다 보내고 있으므로, 학교 생활의 질(quality of school life)이 청소년의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과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클럽이나 서클 활동을 하고, 친구를 사귀며, 선생님과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이들은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성숙된 시민의식(citizenship)을 배양하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는 한 개인의 일생 중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들의 고민은 주로 어떤 것이며,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로부터

터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학교 생활 평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학교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혹은 싫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이 보인 반응은 “매우 좋다” 6.0%, “좋다” 15.9%, “대체로 좋은 편이다” 30.1%, “좋지도 싫지도 않다” 23.6%, “대체로 싫은 편이다” 12.6%, “싫다” 6.9%, “매우 싫다” 4.4%의 순으로서, 과반수 이상(52.0%)이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좋다–중간이다–싫다”라는 3분법으로 보아서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알 수는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 4-1>에서는 “학교에 가는 것이 좋거나 싫은 정도”를 점수로 계산하였다. 그것은 응답자들의 반응을 “매우 좋다”에 3, “좋다”에 2, “대체로 좋은 편이다”에 1, “좋지도 싫지도 않다”에 0, “대체로 싫은 편이다”에 -1, “싫다”에 -2, “매우 싫다”에 -3의 값으로 재부호화하여 산술 평균을 구한 값이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0.41로서 “대체로 좋은 편”에 가깝게 나타난다.

또한 <표 4-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학교에 가는 것이 좋거나 싫은 정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각급 학교, 형제 서열 및 성장 지역 규모별 차이는 뚜렷이 드러난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전문대학생 및 대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을 상대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문고교생과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이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데, 인문고교생들은 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학교 생활에 재미를 잃고 있으며,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들은 자기 학교의 사회적 위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취업에 뜻을 두고 학교 생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형제 서열별로는 중간이나 첫째가 독자보다 학교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성장 지역 규모별로는 면 이하 농촌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다음이 중소도시·대도시의 순이며, 읍 지역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기를 좋아하는 정도가 가장 낮다.

청소년들은 어떤 이유로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가장 좋아하는 이유를 고르라고 질문한 결과를 정리한 <표 4-2>에 따르면, 그 까닭은 “친구와 사귈 수 있어서”(63.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9.2%),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8.8%), “클럽·서클 활동을 할 수 있어서”(3.8%), “학교 공부가 재미있어서”(3.1%), “선생님이 좋아서”(2.1%)의 순

〈표 4-1〉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학교에 가는 것이 좋거나 싫은 정도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수	평균 (점수)	유의미한 차이 (One-Way 결과)	집단간 평균 차이 검정 (F-test)
전체	0.41		
연령		1 2 3 4	
13~15세	0.20	1	
16~18세	0.26	2	
19~21세	0.96	3 * *	
22~24세	1.00	4 * *	F=26.40 p<.001
각급 학교		1 2 3 4 5 6	
중학교	0.22	1	
인문고교	0.20	2	
실업고교	0.31	3	
전문대학	0.90	4 * * *	
대학교	1.09	5 * * * *	
직업훈련원	0.20	6	F=18.09 p<.001
형제 서열		1 2 3 4	
독자	0.07	1	
첫째	0.49	2 *	
중간	0.52	3 *	
막내	0.30	4	F= 3.39 p<.05
성장 지역 규모		1 2 3 4	
대도시	0.40	1	
중소도시	0.48	2	
읍	0.15	3 * *	
면 이하	0.57	4	F= 3.31 p<.05

주: One-Way ANOVA의 유의도 검정은 셰페의 방법(Scheffe's method)을 이용하였다.

이다. 그런데, 여기서 “학교 공부가 재미있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3.1%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청소년들은 공부 자체가 주는 즐거움보다는 학교 생활의 다른 측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친구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이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여자는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와 사귈 수 있어서”的 비율이 높고, 19세 이상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클럽·서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학교 공부가 재미있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4-2〉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이유

(단위: %)

사회·인구학적 변수	친구와 사귐	자신의 능력을 발휘	인격 형성 도움	클럽 서클 활동	학교 공부 재미	선생님 이 좋 아서	기타	무응답	계
전체	63.1	9.2	8.8	3.8	3.1	2.1	1.9	8.3	100.0
성 남자	64.5	10.6	7.5	3.4	2.7	1.4	2.4	7.5	100.0
여자	61.3	7.5	10.3	4.2	3.5	2.9	1.3	9.2	100.0
$\chi^2=18.25^*$									
연령									
13~15세	66.7	9.5	6.9	1.8	2.5	2.0	1.5	9.2	100.0
16~18세	67.5	5.9	9.6	2.6	1.6	2.6	1.2	8.9	100.0
19~21세	52.1	12.0	10.0	9.7	6.6	1.5	3.5	4.6	100.0
22~24세	46.4	17.6	11.2	6.4	5.6	0.8	4.0	8.0	100.0
$\chi^2=105.04^{***}$									
각급 학교									
중학교	66.3	9.7	7.0	1.9	2.6	2.1	1.6	8.8	100.0
인문고교	68.7	6.5	9.0	1.4	2.3	2.8	1.1	8.2	100.0
실업고교	72.1	4.4	10.0	2.6	0.9	1.7	.0	8.3	100.0
전문대학	55.6	8.9	8.9	11.1	4.4	1.1	1.1	8.9	100.0
대학교	50.0	14.3	8.9	10.5	7.4	0.8	4.3	3.9	100.0
직업훈련원	44.4	14.1	14.1	1.0	1.0	4.0	5.1	16.2	100.0
$\chi^2=160.90^{***}$									
형제 서열									
독자	57.8	11.1	6.7	6.7	6.7	0.0	0.0	11.1	100.0
첫째	62.5	9.9	9.2	3.7	3.5	1.6	1.6	8.0	100.0
중간	67.2	8.3	8.3	3.2	2.2	1.7	2.4	6.8	100.0
막내	61.2	9.3	8.2	4.0	3.1	2.9	1.8	9.5	100.0
$\chi^2=16.03$									
가족 소득									
71만원 이하	61.2	8.4	9.3	4.2	4.2	2.3	1.4	8.9	100.0
72~95만원	67.1	8.1	5.6	3.7	1.2	2.5	1.9	9.9	100.0
96~119만원	68.8	10.0	6.7	3.3	2.1	1.7	1.7	5.8	100.0
120~143만원	65.4	9.1	8.7	4.3	3.5	1.3	1.3	6.5	100.0
144~167만원	51.3	10.8	12.7	4.4	1.9	3.8	2.5	12.7	100.0
168~239만원	64.9	9.2	10.7	3.1	1.5	1.1	1.5	8.0	100.0
240만원 이상	57.5	10.3	8.6	4.3	6.4	1.3	3.0	8.6	100.0
$\chi^2=45.80$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61.4	10.7	10.5	4.4	3.7	2.6	2.3	4.2	100.0

사회·인구학적 변수	친구와 사귈	자신의 능력을 발휘	인격 형성 도움	클럽 서클 활동	학교 공부 재미	선생님 이 좋 아서	기 타	무응답	계
사무직	65.1	9.0	6.6	3.5	2.8	1.7	1.7	9.7	100.0
판매·서비스직	62.9	7.2	9.6	3.6	3.6	0.8	1.6	10.8	100.0
생산직	67.5	7.8	5.5	2.0	2.0	2.4	2.4	10.6	100.0
농림어업직	61.3	9.7	8.8	5.5	3.7	1.8	1.8	7.4	100.0
미취업	54.5	11.4	11.4	6.8	0.0	2.3	2.3	11.4	100.0
$\chi^2=37.82$									
거주 지역									
서울	64.2	6.3	10.0	4.1	3.2	1.7	3.4	7.1	100.0
인천·경기·강원	59.9	9.2	7.0	3.8	3.5	2.2	1.0	13.4	100.0
대전·충남·충북	66.9	6.4	9.3	4.1	1.7	2.9	0.6	8.1	100.0
광주·전남·전북	67.7	10.5	7.7	3.6	5.0	0.9	1.8	2.7	100.0
대구·경북	62.8	12.6	11.1	4.0	2.0	2.0	1.5	4.0	100.0
부산·경남	59.2	11.6	7.7	2.8	2.5	2.8	1.8	11.6	100.0
$\chi^2=60.18^{**}$									
성장 지역 규모									
대도시	60.7	10.8	9.3	4.1	3.0	2.3	2.2	7.7	100.0
중소도시	66.7	7.0	8.3	3.4	3.7	1.5	1.2	8.3	100.0
읍	63.5	8.1	9.5	3.3	2.8	2.8	1.4	8.5	100.0
면 이하	67.0	7.0	6.5	3.5	2.5	1.0	2.0	10.5	100.0
$\chi^2=15.68$									

\*p<.05 \*\*p<.01 \*\*\*p<.001

이러한 경향은 각급 학교별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실업고교생·인문고교생·중학생은 “친구와 사귈 수 있어서”의 비율이 단연 높고,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문대학생은 “클럽·서클 활동을 할 수 있어서”的 비율이, 대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클럽·서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학교 공부가 재미있어서”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거주 지역별 차이도 발견되는데, 호남·충청·서울 청소년들은 “친구와 사귈 수 있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비교적 많이 보인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가장 싫어하는 이유를 고르라고 한 결과를 <표 4-3>에 실었다. 그 깊은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기 때문에”(38.8%),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11.3%), “동성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9.9%), “좋은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8.6%),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어서”(4.2%), “이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4.2%), “클럽·서클 활동이 부족해서”(3.8%), “선생님이 돈이나 선물을 요구해서”(0.2%)라는 순서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공부 및 수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학교에 가는 것이 싫은 이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클럽·서클 활동이 부족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싫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자는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기 때문에”, “동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좋은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싫다는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13~18세 연령층에서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기 때문에”的 비율이 단연 높고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어서”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19~21세 연령층은 “동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좋은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이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的 비율이, 그리고 22~24세 연령층은 “클럽·서클 활동이 부족해서”的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은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기 때문에”와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인문고교생은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기 때문에”와 “동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실업고교생과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은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기 때문에”와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的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전문대학생은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와 “동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및 “좋은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대학생은 “동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와 “이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및 “클럽·서클 활동이 부족해서”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 청소년들은 “좋은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와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어서” 및 “클럽·서클 활동이 부족해서”, 부산·경남 청소년들은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와 “이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 지역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기 때문에”的 비율이 단연 높다.

대도시 출신 청소년들은 “좋은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와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어서” 및 “클럽·서클 활동이 부족해서”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 출신은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하기 때문에”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편, 읍 지역 출신은 “동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와 “이성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면 이하 농촌 지역 출신은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的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4-3〉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학교에 가는 것이 싫은 이유

(단위: %)

사회·인구학적 변수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동성 친구 관계가 불원만	좋은 선생님이 별로 없어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성 친구 관계가 불원만	클럽 서클 활동이 부족	선생님이 돈·선물을 요구	기타	비해 당·무용답	계
아버지 직업											
전문 관리직	36.0	9.8	10.3	8.9	4.4	3.0	4.4	0.0	7.5	15.7	100.0
사무직	46.0	10.7	8.3	8.0	2.8	4.5	3.1	0.0	2.8	13.8	100.0
판매·서비스직	40.2	8.0	10.8	9.2	4.0	6.8	3.2	0.0	3.6	14.3	100.0
생산직	36.5	12.2	10.2	9.4	6.3	3.1	4.3	0.4	4.3	13.3	100.0
농림어업직	33.2	15.7	9.7	6.5	3.7	5.5	5.1	0.5	2.3	18.0	100.0
미취업	43.2	9.1	9.1	6.8	6.8	2.3	0.0	0.0	9.1	13.6	100.0
$\chi^2=54.43$											
거주 지역											
서울	32.1	10.0	9.2	10.5	5.4	3.2	5.6	0.0	8.0	16.1	100.0
인천·경기·강원	40.1	10.2	10.2	7.3	3.8	4.1	2.5	0.3	4.5	16.9	100.0
대전·충남·충북	43.0	8.1	9.3	9.3	3.5	4.7	4.1	0.6	2.9	14.5	100.0
광주·전남·전북	43.6	12.7	10.5	9.5	3.2	3.2	2.7	0.0	5.0	9.5	100.0
대구·경북	43.7	11.1	10.6	9.5	3.0	5.5	2.5	0.0	1.5	12.6	100.0
부산·경남	37.0	15.5	9.9	5.3	4.9	5.3	4.2	0.4	2.1	15.5	100.0
$\chi^2=65.63^*$											
성장 지역 규모											
대도시	35.7	11.3	8.6	10.2	5.0	4.1	4.5	0.2	5.8	14.6	100.0
중소도시	49.2	7.0	10.7	6.7	2.8	4.0	1.5	0.0	2.4	15.6	100.0
읍	36.5	15.2	14.2	7.1	3.8	5.2	4.3	0.0	3.8	10.0	100.0
면 이하	37.0	14.5	9.5	6.0	3.5	4.0	4.0	0.5	3.0	18.0	100.0
$\chi^2=57.61^{***}$											

\*p<.05 \*\*p<.01 \*\*\*p<.001

## 2. 친구의 수

"일생에 진실한 친구 하나만 얻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친구는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만나고 사귀는 동년배들과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사회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친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친구의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4-4>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들은 동성 친구 4.16명, 이성 친구 0.80명으로 동성 친구가 이성 친구보다 훨씬 많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청소년의 이성 교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표 4-4〉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친구의 수

(단위: 명)

사회·인구학적 변수	동성	이성	전체	사회·인구학적 변수	동성	이성	전체
전체	4.16	0.80	4.97	72~95만원	4.91	0.75	5.74
				96~119만원	2.99	0.66	3.65
성				120~143만원	3.40	0.74	4.18
남자	4.71	0.91	5.59	144~167만원	4.67	0.74	5.44
여자	3.50	0.67	4.20	168~239만원	4.10	0.85	4.96
(t값)	2.86**	3.27**	3.06**	240만원 이상	5.94	1.04	6.89
				(F값)	3.55**	1.64	3.81**
연령							
13~15세	4.17	0.53	4.73	아버지 직업			
16~18세	4.22	0.83	5.03	전문·관리직	4.75	0.77	5.46
19~21세	4.31	1.27	5.55	사무직	3.69	0.66	4.37
22~24세	3.52	1.02	4.58	판매·서비스직	4.53	0.77	5.32
(F값)	0.23	16.10***	0.56	생산직	3.41	0.88	4.35
				농림어업직	4.10	0.84	4.95
각급 학교				미취업	3.37	0.88	4.27
중학교	4.13	0.53	4.68	(F값)	0.99	0.68	0.86
인문고교	3.88	0.68	4.51				
실업고교	4.62	0.93	5.61	거주 지역			
전문대학	5.43	1.42	6.84	서울	4.14	0.72	4.85
대학교	3.55	1.19	4.75	인천·경기·강원	3.51	0.76	4.24
직업훈련원	4.75	0.93	5.66	대전·충남·충북	6.23	0.94	7.25
(F값)	0.99	11.22***	1.36	광주·전남·전북	3.65	0.70	4.37
				대구·경북	3.33	0.84	4.18
형제 서열				부산·경남	4.71	0.92	5.65
독자	2.79	1.02	3.85	(F값)	3.10**	1.17	3.15**
첫째	3.96	0.74	4.73				
중간	4.26	0.77	5.04	성장 지역 규모			
막내	4.10	0.86	4.90	대도시	4.22	0.78	5.00
(F값)	0.42	0.93	0.28	중소도시	3.89	0.89	4.79
				읍	4.72	0.82	5.55
가족 소득				면·이하	3.77	0.72	4.50
71만원 이하	3.06	0.74	3.80	(F값)	0.53	0.67	0.48

\*p&lt;.05 \*\*p&lt;.01 \*\*\*p&lt;.001

를 합해 보면 한국 청소년의 친구 수 평균은 4.97명으로 거의 5명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는 동성 친구 4.71명, 이성 친구 0.91명, 여자는 동성 친구 3.50명, 이성 친구가 0.67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친구를 더 많이 사귐을 알 수 있다. 연령과 학교별로는 13~18세의 중학교·인문고교생·실업고교생

및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과 19~24세의 전문대학생·대학생 사이에서 이성 친구 수 차이가 보인다. 즉 이성 친구 수는 연령과 학교 등급이 높을수록 많다. 가족 소득별로는 96~119만원 소득층과 71만원 이하 소득층 청소년의 동성 친구 수 및 전체 친구 수가 가장 적고, 거주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충북 청소년의 동성 친구 수 및 전체 친구 수가 특히 많다.

### 3. 좋아하는 선생님

청소년의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싫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8.6%에 달했다. 물론 “선생님이 좋아서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는 응답을 한 청소년은 전체의 2.1%에 불과하지만, 좋은 선생님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들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4-5>에 제시한 결과를 보면, “어느 학생에게나 공평한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18.8%로 가장 많다. 청소년들은 많은 학생들을 다루면서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모든 학생들을 한결같은 자세로 대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선생님을 그 다음 순서대로 보면, “수업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17.1%), “곁은 엄하지만 속은 따뜻한 선생님”(17.0%), “고민을 함께 생각해주는 선생님”(16.7%), “유머있는 선생님”(16.2%), “솔직한 선생님”(16.2%)의 순이다. 그런데 각 유형별 백분율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상은 무척 다양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상을 살펴보면, 남자는 “유머있는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여자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선생님”을 가장 좋아한다.

연령별로는 13~15세 청소년은 “유머있는 선생님”과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선생님” 및 “수업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 16~18세 청소년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선생님”, 19~21세 청소년은 “고민을 함께 생각해주는 선생님”, 22~24세 청소년은 “솔직한 선생님”을 특히 좋아한다.

중학생은 “유머있는 선생님”과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선생님” 및 “수업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 인문고교생과 실업고교생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선생님”, 전문대학생은 “고민을 함께 생각해주는 선생님”과 “수업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 대학생은 “솔직한 선생님”,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은 “곁은 엄하지만 속은 따뜻한 선생님”과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선생님”

〈표 4-5〉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좋아하는 선생님

(단위: %)

사회·인구학적 변수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알기 쉽게 가르치는	걸은 엄하지만 속은 따뜻한	고민을 함께 생각해주는	유머 있는	솔직한	기타	무庸답	계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13.1	18.2	20.3	17.8	15.9	9.8	3.5	1.4	100.0
사무직	19.7	18.3	16.3	17.3	14.5	9.7	3.1	1.0	100.0
판매·서비스직	16.3	12.7	23.1	17.5	15.5	10.8	1.6	2.4	100.0
생산직	20.8	15.3	14.5	18.0	16.5	11.8	1.2	2.0	100.0
농림어업직	26.7	18.4	13.8	12.0	19.8	8.8	0.0	0.5	100.0
미취업	11.4	15.9	6.8	22.7	20.5	13.6	4.5	4.5	100.0
$\chi^2=61.22^{**}$									
거주 지역									
서울	12.4	16.8	18.2	14.6	18.5	10.7	5.1	3.6	100.0
인천·경기·강원	21.3	15.3	21.7	16.6	15.3	8.0	0.6	1.3	100.0
대전·충남·충북	19.8	15.1	13.4	18.0	16.3	14.0	1.7	1.7	100.0
광주·전남·전북	21.4	21.8	13.2	16.4	15.0	10.5	1.4	0.5	100.0
대구·경북	22.6	19.6	14.6	18.1	12.6	8.0	1.5	3.0	100.0
부산·경남	19.7	15.5	16.9	18.3	17.3	9.9	1.8	0.7	100.0
$\chi^2=68.99^{***}$									
성장 지역 규모									
대도시	17.2	17.1	18.0	16.6	15.9	10.2	2.8	2.3	100.0
중소도시	17.1	18.3	15.6	19.9	15.3	10.1	3.1	0.6	100.0
읍	22.7	18.0	15.2	15.2	17.1	8.1	0.9	2.8	100.0
면 이하	24.0	14.5	17.0	13.5	18.0	11.0	0.5	1.5	100.0
$\chi^2=24.95$									

\*p<.05 \*\*p<.01 \*\*\*p<.001

을 가장 좋아한다.

아버지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과 전문·관리직은 “걸은 엄하지만 속은 따뜻한 선생님”, 농림어업직·생산직·사무직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선생님”, 미취업은 “고민을 함께 생각해주는 선생님”과 “유머있는 선생님”을 가장 좋아한다.

한편, 서울 청소년들은 “유머있는 선생님”과 “걸은 엄하지만 속은 따뜻한 선생님”을 좋아하고, 기타 지역 청소년들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상으로 꼽고 있다.

요컨대,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더 좋아한다. 즉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격 면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4. 고민이나 걱정거리

청소년은 본질적으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정체성(identity)의 유동성 때문에 다른 연령층보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많은 세대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춘기의 사회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칫하면 일탈행동을 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지적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는 비율은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청소년이 2%에도 미달한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여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고민을 주로 하는가? “학교 공부·성적에 대한 고민”(45.6%)이 가장 심각하고, 둘째로는 “진학·진로 문제”(15.3%)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고민·걱정거리로는 “취직·취업 문제”(8.9%), “이성 문제”(5.5%), “성격”(4.8%), “친구 문제”(3.9%), “외모”(3.3%), “성 문제”(2.8%), “돈 문제”(2.4%), “가족 문제”(2.1%), “건강”(1.8%)의 순이다. 즉 공부와 진학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고민들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청소년의 고민이나 걱정거리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진학, 이성 문제, 성 문제, 돈 문제, 건강 등에 대한 걱정이 많고, 여자는 남자보다 공부, 취직 취업, 성격, 외모, 친구, 가족에 대한 고민이 많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공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예컨대 13~15세 청소년의 59.9%가 공부나 성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학문제는 고등학생 연령층인 16~18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다. 한편, 취직·취업 문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고민하는 비율이 높아, 22~24세 청소년의 37.6%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 연령별로 기타 두드러진 고민·걱정거리들을 찾아보면, 13~15세 청소년들은 외모, 16~18세 청소년들은 성, 19~21세 청소년들은 이성·성격·친구 문제, 22~24세 청소년들은 돈·건강·가족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많다.

중학생이 특히 학교공부와 성적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61.3%), 인문고교생은 중학생보다 진학·진로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19.7%). 이러한 현상은 인문고교생들에게는 대학 입학과 취업, 그리고 대학

〈표 4-6〉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고민·걱정거리

(단위: %)

사회·인구학적 변수	공부	친학	취직 취업	이성	성격	친구	외모	성 돈	가족	고민 없음	건강	기타	무응답	계
전체	45.6	15.3	8.9	5.5	4.8	3.9	3.3	2.8	2.4	2.1	1.9	1.8	1.0	0.7 100.0
성														
남자	43.6	15.7	8.5	6.9	4.2	3.1	1.8	4.1	3.3	1.8	2.7	2.3	1.1	0.8 100.0
여자	47.9	14.9	9.4	3.8	5.4	5.0	5.0	1.1	1.4	2.5	1.0	1.3	0.8	0.6 100.0
$\chi^2=55.58^{***}$														
연령														
13~15세	59.9	15.4	0.3	3.4	3.1	3.9	4.1	2.5	1.6	1.1	2.1	1.8	0.0	0.5 100.0
16~18세	47.1	17.1	7.7	5.4	5.3	2.6	3.5	3.0	2.1	2.3	1.2	1.2	0.7	0.8 100.0
19~21세	21.2	12.7	18.1	10.8	8.5	8.1	1.5	3.1	4.2	3.5	1.5	2.7	2.7	1.2 100.0
22~24세	18.4	11.2	37.6	4.8	2.4	1.6	1.6	2.4	4.0	3.2	5.6	3.2	4.0	0.0 100.0
$\chi^2=383.37^{***}$														
각급 학교														
중학교	61.3	14.9	0.4	3.5	2.6	3.3	4.2	2.3	1.8	0.9	2.5	1.8	0.0	0.5 100.0
인문고교	56.6	19.7	1.7	2.8	3.4	2.8	3.1	2.5	1.4	1.7	1.4	1.4	0.6	0.8 100.0
실업고교	36.2	14.4	16.2	7.9	7.9	3.9	4.8	2.2	1.3	3.5	0.0	0.9	0.4	0.4 100.0
전문대학	21.1	12.2	24.4	8.9	6.7	6.7	2.2	1.1	7.8	0.0	3.3	1.1	2.2	2.2 100.0
대학교	20.5	9.7	24.4	10.1	7.4	5.8	1.2	3.1	3.1	4.7	3.1	3.1	3.5	0.4 100.0
직업훈련원	24.2	21.2	13.1	6.1	6.1	4.0	1.0	8.1	6.1	3.0	1.0	3.0	2.0	1.0 100.0
$\chi^2=436.71^{***}$														
형제 서열														
독자	55.6	15.6	2.2	4.4	2.2	4.4	4.4	4.4	2.2	0.0	0.0	2.2	2.2	0.0 100.0
첫째	48.7	16.8	8.0	6.1	3.3	3.7	2.6	2.4	1.7	1.6	1.9	1.6	0.5	1.0 100.0
중간	38.7	16.3	11.7	3.9	6.8	4.9	2.4	3.6	3.6	2.7	2.7	1.9	0.5	0.2 100.0
막내	46.1	13.3	8.7	6.0	4.7	3.6	4.6	2.4	2.0	2.6	1.5	2.0	1.8	0.7 100.0
$\chi^2=51.74$														
가족 소득														
71만원 이하	48.1	10.7	11.7	4.7	3.3	2.8	0.9	3.7	5.1	3.7	1.4	1.4	0.9	1.4 100.0
72~95만원	47.2	10.6	8.7	7.5	6.8	3.7	3.1	1.9	2.5	1.2	1.9	3.7	0.6	0.6 100.0
96~119만원	47.9	16.7	8.8	4.2	5.4	2.9	4.2	1.7	2.1	2.1	1.3	2.5	0.4	0.0 100.0
120~143만원	48.5	16.5	10.0	4.3	3.5	2.6	3.0	2.2	2.6	2.2	1.3	2.2	0.9	0.4 100.0
144~167만원	39.9	13.9	12.0	6.3	5.1	5.1	5.1	1.9	0.6	2.5	4.4	1.9	0.6	0.6 100.0
168~239만원	41.6	18.7	9.2	5.0	3.8	4.2	5.0	4.2	0.4	1.5	1.9	1.5	1.9	1.1 100.0
240만원 이상	44.2	15.5	6.4	7.3	6.4	5.2	2.6	3.9	3.4	2.1	1.7	0.0	0.9	0.4 100.0
$\chi^2=85.06$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47.2	14.5	8.2	5.4	5.1	2.6	2.3	4.0	1.2	2.8	1.9	2.3	1.9	0.7 100.0
사무직	49.8	15.2	7.3	3.8	5.9	3.8	3.8	1.7	1.4	0.7	3.5	1.7	0.7	0.7 100.0

사회·인구학적 변수	공부	진학	취직	이성	성격	친구	외모	성	돈	가족	고민	없음	건강	기타	무응답	계
판매·서비스직	43.4	17.1	5.2	8.4	5.6	5.2	3.2	2.8	3.6	2.0	2.0	0.4	1.2	0.0	100.0	
생산직	47.1	14.1	10.2	5.1	2.0	4.7	5.9	2.4	1.6	3.1	0.8	1.6	0.8	0.8	100.0	
농림어업직	37.3	17.1	15.7	6.0	6.0	4.6	1.4	2.8	4.1	0.9	0.5	2.3	0.5	0.9	100.0	
미취업	47.7	13.6	9.1	4.5	2.3	6.8	4.5	0.0	4.5	2.3	2.3	2.3	0.0	0.0	100.0	
$\chi^2=89.21^*$																
거주 지역																
서울	51.6	12.4	7.1	5.1	4.4	3.4	2.9	3.2	2.7	1.9	2.2	0.5	1.7	1.0	100.0	
인천·경기·강원	41.1	19.4	9.2	6.4	4.8	3.5	2.5	1.9	1.6	2.2	2.5	1.9	1.9	1.0	100.0	
대전·충남·충북	45.9	16.9	5.8	9.3	1.7	4.7	3.5	1.7	1.2	2.9	2.9	1.7	1.2	0.6	100.0	
광주·전남·전북	39.1	15.5	13.2	4.5	8.2	4.1	3.6	1.8	2.7	3.6	0.5	1.8	0.5	0.9	100.0	
대구·경북	47.2	14.1	12.1	2.5	4.0	3.0	4.5	3.0	3.5	1.5	2.0	2.0	0.0	0.5	100.0	
부산·경남	45.4	14.8	7.7	5.6	4.9	5.3	3.2	4.2	2.8	1.1	1.4	3.5	0.0	0.0	100.0	
$\chi^2=84.76$																
성장 지역 규모																
대도시	46.5	13.9	8.7	5.3	3.9	3.8	3.7	3.4	2.3	2.3	2.2	2.0	1.2	0.7	100.0	
중소도시	42.2	17.1	7.3	7.0	6.1	3.7	3.7	2.4	2.1	2.8	2.4	1.8	0.9	0.3	100.0	
읍	47.9	16.6	6.6	5.2	7.1	4.7	2.4	1.4	2.8	1.4	1.4	0.9	0.5	0.9	100.0	
면 이하	44.5	17.0	15.0	4.0	3.5	4.0	1.5	2.0	3.0	1.0	0.5	2.0	1.0	1.0	100.0	
$\chi^2=37.87$																

\*p<.05 \*\*p<.01 \*\*\*p<.001

입학 과정에서의 학과 선택 등 앞으로의 진로문제가 바로 눈 앞에 놓여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취직·취업 문제는 대학생(24.4%), 전문대학생(24.4%), 실업고교생(16.2%),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13.1%)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각급 학교별로 기타 두드러진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찾아보면, 중학생·인문고교생·실업고교생은 외모, 전문대학생은 이성·돈·친구·성격 문제, 대학생은 이성·성격·가족 문제,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은 성·돈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많다.

아버지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 집단에서 공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적고(37.3%) 나머지 직업 집단에서는 그것이 40%를 훨씬 상회한다. 진학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집단이 상대적으로 고민이 많고(17.1%), 취직·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어업직(15.73%)·생산직(10.2%) 집단이 상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한다.

청소년들의 고민·걱정거리는 그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혹은 친구 수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고민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공부와 진학 문제라는 점에서 학교 생활 만족도와 그들의 고민 내용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이고,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이유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친구를 사귈 수가 있기 때문에”라는 반응이므로 청소년의 친구 수와 고민 내용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고민·걱정거리 별로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정도와 동성 친구 수, 이성 친구 수, 전체 친구 수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을 순위화하여 〈표 4-7〉에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고민이 없다”는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는 가족, 취직·취업, 성격, 건강, 진학, 친구, 공부, 이성, 돈, 외모, 성 문제의 순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성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싫다”는 쪽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0.08).

둘째, 동성 친구 수가 많을수록 “돈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다음으로

〈표 4-7〉 고민·걱정거리별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정도 점수 및 친구 수

순위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정도 점수	동성 친구 수		
순위	이성 친구 수		전체 친구 수	
1	고민 없음	0.79	돈	5.37
2	가족	0.65	건강	5.08
3	취직·취업	0.61	이성	4.92
4	성격	0.61	성	4.67
5	건강	0.47	고민 없음	4.63
6	진학	0.39	진학	4.17
7	친구	0.38	공부	4.16
8	공부	0.38	취직·취업	3.80
9	이성	0.32	성격	3.69
10	돈	0.29	가족	3.44
11	외모	0.09	친구	3.41
12	성	-0.08	외모	3.35
1	이성	1.13	돈	6.42
2	가족	1.13	이성	6.03
3	성	1.05	건강	5.82
4	돈	1.02	성	5.73
5	취직·취업	0.96	고민 없음	5.23
6	친구	0.89	공부	4.83
7	성격	0.81	진학	4.80
8	건강	0.75	취직·취업	4.79
9	외모	0.70	가족	4.62
10	공부	0.67	성격	4.44
11	진학	0.63	친구	4.33
12	고민 없음	0.57	외모	4.02

는 건강, 이성, 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고민이 없다”는 응답은 5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동성 친구 수가 많은 것은 고민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동성 친구가 없거나 수가 적을수록 외모, 친구, 가족, 성격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성 친구 수가 많을수록 “이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다음으로는 가족, 성, 돈 문제 등의 순이다. 한편 이성 친구가 없거나 수가 적을수록 “고민이 없다”는 비율이 단연 높으며, 다음으로는 진학, 공부, 외모에 대한 고민이 많다. 즉 이성 친구의 존재는 청소년의 고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난다.

넷째, 전체 친구 수가 많을수록 돈, 이성, 건강, 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친구 수가 적을수록 외모, 친구, 성격, 가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요컨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공부·성적과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바람직한 입시 제도의 수립과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인간 위주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고민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학교 생활 운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성 친구가 없거나 적은 청소년들이 “고민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이성 교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V. 청소년의 여가생활

청소년들에게 여가생활은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 만큼 중요하다. 여가는 가정·학교·직장 내지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노동이나 의무를 실현하고 난 후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일 뿐 아니라, 휴식·회복·오락·자기실현·기분전환·지식향상·기술개발·사회참여를 제공해주는 기회로 정의된다 (Wylyson, 1980; 김기웅, 1994). 따라서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는가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대개 공부만을 강요당하여 여가생활이 극도로 압박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위축되고 있으며,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 및 취업난으로 인하여 더욱 빈곤해지고 있다. 또한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 한국 사회에는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기회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여가시간과 그 활용 실태 및 여가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

### 1. 여가 시간과 여가 활용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향유하는 여가 시간은 3시간 이상이 3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다음은 120~149분(15.6%), 60~89분(13.5%), 90~119분(12.7%), 150~179분(12.1%), 30~59분(6.2%)의 순인데,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5%에 불과하다. 이 선택범주의 중간값을 취하여 계산한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시간 20분(140.45분) 정도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여가시간의 차이는 <표 5-1>의 자료로 살펴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19~24세 청소년들이 13~18세 청소년들보다 훨씬 여가시간이 많은 편이고, 대학생, 실업고교생,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들이 중학생·인문고교생보다 훨씬 더 많은 여가시간을 누린다. 특히 그 중 인문고교생의

<표 5-1> 청소년의 여가 시간

사회·인구학적 변수	평균 (분)	유의미한 차이 (One-Way 결과)	집단간 평균 차이 검정 (F-test)
전체	104.45		
연령		1 2 3 4	
13~15세	133.22	1	
16~18세	137.03	2	
19~21세	156.98	3 * *	
22~24세	158.23	4 * *	F=17.67 p<.001
각급 학교		1 2 3 4 5 6	
중학교	132.78	1	
인문고교	123.22	2	
실업고교	151.77	3 * *	
전문대학	167.36	4 * *	
대학교	158.58	5 * *	
직업훈련원	148.64	6 *	F=24.01 p<.001
형제 서열		1 2 3 4	
독자	128.33	1	
첫째	133.42	2	
중간	147.92	3 *	
막내	143.06	4	F= 7.16 p<.001

여가시간이 대학 입시 부담으로 인하여 가장 짧다(2시간 3분). 한편, 형제 서열별로는 독자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이 가장 짧고(2시간 8분), 중간인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2시간 28분).

그러면,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여가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모든 조건이 허락된다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기를 희망하는가"를 질문하여 두 가지씩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5-2).

우선, 실제 여가시간 활용 방법은 "TV·라디오·비디오·신문 등과 같은 대중 매체를 본다"는 반응이 50.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면·목욕·휴식을 취한다"(29.1%), "공부하거나 과외 학원에 간다"(16.3%), "교과서 이외의 독서를 한다"(15.0%), "동성 친구를 만난다"(13.1%) 등의 순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실제 여가시간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중학생·인문고교생·실업고교생에 해당하는 10대 청소년들은 대중 매체 접촉과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데 여가시간을 활용한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전문대학생·대학생인 20대 청소년들은 교과서 이외의 독서나 영화·연극 관람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또, 실업고교생은 인문고교생보다 친

〈표 5-2〉 실제 및 희망 여가 활용

순위	실제 여가 활용	%	희망 여가 활용	%
1	TV·라디오·비디오·신문	50.6	여행	37.1
2	수면·목욕·휴식	29.1	영화·연극 관람	31.6
3	공부·과외·학원 등	16.3	이성친구 만나기	24.4
4	교과서 이외 독서	15.0	등산·체육활동	13.9
5	동성친구 만나기	13.1	클럽·서클·봉사활동	12.5
6	만화책·무협지 읽기	9.9	교과서 이외 독서	11.4
7	절·성당·교회 가기	9.7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9.4
8	영화·연극 관람	8.4	스포츠 관람	8.4
9	이성친구 만나기	7.2	쇼핑	7.3
10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7.1	공부·과외·학원 등	7.1
11	등산·체육활동	6.1	수면·목욕·휴식	6.4
12	스포츠 관람	5.8	가족과 외식	5.6
13	가사일	4.7	동성친구 만나기	4.9
14	클럽·서클·봉사활동	3.9	만화책·무협지 읽기	4.6
15	노래방 가기	2.8	TV·라디오·비디오·신문	3.8
16	쇼핑	2.5	노래방 가기	2.8
17	여행	2.0	절·성당·교회 가기	2.4
18	바둑·화투·카드놀이	1.9	바둑·화투·카드놀이	1.8
19	기타	1.8	기타	0.9
20	가족과 외식	1.3	가사일	0.7

구를 만나거나, 영화·연극 관람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가족 소득별로는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들은 학업에, 중산층 청소년들은 대중 매체 접촉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이나 거주 지역 또는 성장 지역 규모별로는 눈에 띠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조건이 허락된다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행을 하겠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영화·연극 관람”(31.6%), “이성 친구 만나기”(24.4%), “등산·체육 활동”(13.9%), “클럽·서클·봉사 활동”(12.5%), “교과서 이외의 독서”(11.4%)의 순이다.

각급 학교별로는 전문대학생·대학생은 여행이나 공부 독서에 치중하고 싶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 중학생·고등학생은 영화·연극 관람, 친구 만나기, 교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다. 형제 서열별로는 독자 청소년이 동성 및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반응을 좀 더 많이 보인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영위하는 실제 여가생활은 집 안에서 대중 매체를 접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정적인 것이지만, 그들이 희망하는 여가생활은 외출하여 활동하는 동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2. 용돈 사용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획득하기보다는 부모나 친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용돈 액수는 그들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5-3〉은 청소년들의 용돈 액수를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평균 5만 6천원의 용돈을 받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용돈을 많이 받고, 연령이 높을수록 용돈 액수가 많다. 중학생과 인문고교생의 용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업고교생,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 전문대학생, 대학생의 순으로 용돈 액수가 점차로 많아진다.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용돈 액수가 많으며, 아버지 직업별로는 생산직의 용돈 액수가 가장 적고 전문·관리직의 용돈 액수가 가장 많다. 성장 지역 규모별로는 특히 읍 지역 출신 청소년의 용돈 액수가 도시지역 출신에 비하여 적다.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용돈을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을 두 개 고르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5-4〉는 청소년들의 주된 용돈 지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분식점 등에서의 음식값”(56.6%)에 용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는 “도서 구입”(28.6%), “음반·카세트테잎 구입”(27.1%), “영화 관

〈표 5-3〉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청소년의 용돈 액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평균 (만원)	유의미한 차이 (One-Way 결과)	집단간 평균 차이 검정 (t-test 또는 F-test)
전체	5.67		
성		1 2	
남자	6.07	1	
여자	5.19	2 *	t=2.43 p<.05
연령		1 2 3 4	
13~15세	2.02	1	
16~18세	3.71	2 *	
19~21세	12.98	3 * *	
22~24세	16.64	4 * * *	F=514.39 p<.001
각급 학교		1 2 3 4 5 6	
중학교	2.01	1	
인문고교	3.04	2	
실업고교	3.69	3 *	
전문대학	12.51	4 * * *	
대학교	16.03	5 * * * *	
직업훈련원	5.76	6 * * * *	F=375.55 p<.001
가족 소득		1 2 3 4 5 6 7	
71만원 이하	3.39	1	
72~95만원	4.56	2	
96~119만원	4.94	3	
120~143만원	5.04	4	
144~167만원	5.93	5	
168~239만원	7.59	6 * * *	
240만원 이상	8.22	7 * * * *	F=13.18 p<.001
아버지 직업		1 2 3 4 5 6	
전문·관리직	7.25	1	
사무직	5.37	2	
판매·서비스직	5.31	3	
생산직	4.29	4 *	
농림어업직	5.09	5	
미취업	6.45	6	F=6.63 p<.001
성장 지역 규모		1 2 3 4	
대도시	6.18	1	
중소도시	5.98	2	
읍	3.78	3 * *	
면 이하	5.04	4	F=7.03 p<.001

람”(22.5%) 등의 순으로 용돈을 지출한다. 그러나, 무용·연극·음악감상실·음악회·미술전시회 등 문화예술 부문에는 거의 용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청소년들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여행이나 문화예술 행사 관람보다는 음식값·학용품비·음반값 등의 정적이고 소극적인 부문에 주로 용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이 참여한 문화예술 활동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표 5-5>는 청소년들이 지난 6개월간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한 평균 횟수

&lt;표 5-4&gt; 용돈 지출처

지출 용도	%
분식점 등의 음식값	56.6
도서 구입	28.6
음반 카세트테잎 구입비	27.1
영화 관람	22.5
과외 학원 수강료	9.9
놀이 기구 사용료	8.6
여행·등산·캠핑	7.9
독서실 사용료	6.4
예능 학원 수강료	4.4
운동장·체육관 입장료	4.1
디스코텍 입장료	2.1
공원 입장료	1.1
무용 관람	0.9
연극 관람	0.8
음악감상실 입장료	0.8
음악회 관람	0.6
미술전시회 관람료	0.4
기타	13.2

&lt;표 5-5&gt; 지난 6개월간의 문화예술 행사 참여 평균 횟수

문화활동	회
영화 관람	4.05
고궁·사적지 방문	0.71
박물관 방문	0.54
미술전시회 관람	0.36
음악회 관람	0.31
연극 관람	0.29
문학행사 참가	0.23
방송사 공개방송 참가	0.13
무용 관람	0.07

수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영화관람이 고작이다. 이것도 6개월간 4.05회로서, 1달 기준으로 보면 1편에 미달된다. 나머지 항목은 6개월간 평균 1회에도 훨씬 미달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그들이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3. 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및 대책 방안

앞에서 청소년의 여가생활이 집 안에서 대중매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소일하는 수준이고, 실제와 희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들이 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5-6>은 청소년 자신이 지적한 여가 활용의 장애 요인들이다. 그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시간이 없어서”(31.3%)를 첫째 요인으로 꼽고 있고, 다음이 “돈이 없어서”(25.1%),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23.4%) 등의 순이다.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용돈 및 정신적 여유의 부족이 그들이 여가를 자유롭고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인 것이다.

성별로는 여자(27.1%)가 남자(20.3%)보다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많은데, 13~15세에서는 20.2%, 16~18세는 21.4%, 19~21세는 28.6%, 22~24세는 37.6%로서 직선적인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돈이 없어서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연령층은 16~21세가 상대적으로 많다.

각급 학교별로는 인문고교생은 시간과 정신적 여유의 부족을 여가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꼽고, 실업고교생은 돈의 부족을 여가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전문대학생과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이나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표 5-7>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적극적 여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안한 내용이다. 우선 거의 과반수(47.9%)에 이르는 청소년들은 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공연장(32.6%), 휴게실(25.1%), 예능 시설(22.2%), 야외 캠프장(22.1%), 공원·놀이터(14.8%), 청소년 디스코텍(14.7%), 도서실·독서실(13.8%) 등의 순이다.

바람직한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방안에서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자들은 체육시설(59.0%)과 공연장(28.3%) 및 휴게실(24.2%)의 순서로

〈표 5-6〉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여가시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단위: %)

사회·인구학적 변수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관련시설 프로그램 이 없어	기타	무응답	계
전체	31.3	25.1	23.4	9.8	6.0	3.7	0.8	100.0
성								
남자	32.3	27.2	20.3	10.7	5.9	3.0	0.7	100.0
여자	30.0	22.5	27.1	8.8	6.1	4.6	1.0	100.0
$\chi^2=16.58^*$								
연령								
13~15세	34.6	22.7	20.2	13.5	5.1	3.1	0.8	100.0
16~18세	29.2	27.7	21.4	7.7	8.6	4.6	0.8	100.0
19~21세	26.6	28.6	28.6	7.3	4.2	3.9	0.8	100.0
22~24세	34.4	16.8	37.6	7.2	1.6	1.6	0.8	100.0
$\chi^2=60.16^{***}$								
각급 학교								
중학교	33.9	23.0	19.7	14.2	5.3	3.0	0.9	100.0
인문고교	33.5	19.2	24.8	6.8	9.3	5.6	0.8	100.0
실업고교	28.8	34.1	16.2	8.7	8.3	3.9	0.0	100.0
전문대학	23.3	42.2	22.2	4.4	2.2	3.3	2.2	100.0
대학교	29.8	17.4	37.2	8.9	2.3	3.9	0.4	100.0
직업훈련원	24.2	41.4	21.2	5.1	6.1	0.0	2.0	100.0
$\chi^2=127.95^{***}$								
형제 서열								
독자	37.8	24.4	15.6	15.6	4.4	2.2	0.0	100.0
첫째	32.3	23.0	25.1	9.4	5.6	3.7	0.9	100.0
중간	31.6	25.1	20.2	11.2	7.3	3.6	1.0	100.0
막내	28.8	27.5	24.8	8.7	5.5	4.0	0.7	100.0
$\chi^2=14.05$								
가족 소득								
71만원 이하	27.6	35.0	17.3	12.1	4.7	1.9	1.4	100.0
72~95만원	26.1	28.0	22.4	10.6	7.5	5.0	0.6	100.0
96~119만원	30.0	21.3	26.3	10.0	7.9	4.6	0.0	100.0
120~143만원	29.4	22.5	26.8	9.5	6.5	4.3	0.9	100.0
144~167만원	37.3	20.9	20.9	13.9	2.5	3.8	0.6	100.0
168~239만원	36.6	22.5	24.8	7.3	5.0	3.8	0.0	100.0
240만원 이상	32.6	23.2	24.9	11.2	4.3	3.0	0.9	100.0
$\chi^2=49.01$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33.9	18.9	28.3	7.5	4.7	6.1	0.7	100.0

사회·인구학적 변수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관련시설 프로그램 이 없어	기타	무응답	계
사무직	36.0	20.8	26.3	9.0	4.8	3.1	0.0	100.0
판매·서비스직	33.9	26.3	21.1	7.2	7.2	2.8	1.6	100.0
생산직	25.9	28.2	18.8	17.3	5.9	3.5	0.4	100.0
농림어업직	26.3	33.2	18.0	11.5	8.8	1.8	0.5	100.0
미취업	20.5	27.3	34.1	6.8	9.1	2.3	0.0	100.0
$\chi^2=78.90^{***}$								
거주 지역								
서울	30.4	25.8	24.6	9.0	4.9	4.1	1.2	100.0
인천·경기·강원	32.2	22.0	22.0	12.7	6.7	3.8	0.6	100.0
대전·충남·충북	30.2	25.6	24.4	10.5	4.1	4.7	0.6	100.0
광주·전남·전북	31.8	26.4	25.9	4.1	8.6	3.2	0.0	100.0
대구·경북	28.1	21.6	27.1	12.6	3.5	5.5	1.5	100.0
부산·경남	33.8	28.5	18.0	9.9	7.7	1.4	0.7	100.0
$\chi^2=42.11$								
성장 지역 규모								
대도시	31.6	23.8	25.5	8.7	4.9	4.5	1.0	100.0
중소도시	34.9	22.6	23.9	8.3	7.0	3.1	0.3	100.0
읍	27.5	25.1	20.4	13.7	9.0	3.3	0.9	100.0
면 이하	28.0	34.5	16.5	13.0	6.0	1.5	0.5	100.0
$\chi^2=37.48$								

\*p&lt;.05 \*\*p&lt;.01 \*\*\*p&lt;.001

〈표 5-7〉 확충되어야 할 여가 공간·시설

여가 공간·시설	%
체육시설(운동장·수영장·탁구장·롤러스케이트장·테니스장 등)	47.9
공연장(극장·야외음악당)	32.6
휴게실(분식점·제과점·스낵코너·청소년 카페 등)	25.1
예능 시설(음악감상실·미술전시관 등)	22.2
야외 캠프장	22.1
공원·놀이터	14.8
청소년 디스코테	14.7
도서실·독서실	13.8
예능 학원(음악·미술·서예 등)	1.9
과외 학원(학교 공부 보충)	1.1
기타	2.5

응답하지만, 여자들은 공연장(37.9%)과 체육시설(34.4%) 및 예능시설(30.0%)의 순서로 응답한다. 이는 남자들은 동적인 여가 활동을 지향하고, 여자는 정적인 여가 활동을 지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VII. 청소년의 교육, 직업 및 일에 대한 태도

### 1. 교육 수준

청소년들의 가장 주된 고민·걱정거리가 공부와 진학으로 나타났듯이 우리 사회는 학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청소년들 자신이 원하는 교육수준은 그들의 준거집단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 본인의 기대 교육 수준간에 어떤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 6-1>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년수와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년수 및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년수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여기서 교육년수는 무학 0, 서당 3, 국민학교 6, 중학교 9, 고등학교 12, 전문대학 초급대학 14, 대학교 16, 대학원 석사 18, 대학원 박사 21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표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년수의 상관계수(Pearson's *r*)는 0.74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부모의 교육년수와 부모기대 교육년수 및 본인희망 교육년수간의 상관계수는 0.20~0.29 정도로 나타나 관련성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한결같이 높은 학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한편, 부모기대 교육년수와 본인희망 교육년수의 상관계수는 0.57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표 6-2>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아버지·어머니의 평균 교육년수, 부모기대 평균 교육년수 및 본인희망 평균 교육년수가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평균 고졸 정도(12.03년),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1~2학년 정도(10.45년)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바라거나, 청소

<표 6-1> 아버지 어머니 학력, 부모기대 학력 및 본인희망 학력의 상관계수표  
(N=1,515)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부모기대 학력	본인희망 학력
아버지 학력	1.0000			
어머니 학력	.7399***	1.0000		
부모기대 학력	.2874***	.2304***	1.0000	
본인희망 학력	.2519***	.1975***	.5727***	1.0000

\*\*\*p<.001

〈표 6-2〉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아버지 어머니 교육년수.

부모기대 교육년수 및 본인희망 교육년수

(단위: 년)

사회·인구학적 변수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부모기대 학력	본인희망 학력
전체	12.03	10.45	16.56	16.52
성 남자	12.14	10.50	16.75	16.55
여자	11.90	10.40	16.33	16.49
(t값)	1.30	0.58	3.74***	0.46
연령				
13~15세	12.05	10.72	16.45	16.32
16~18세	11.83	10.26	16.17	16.17
19~21세	12.23	10.38	17.31	17.31
22~24세	12.50	10.24	17.45	17.66
(F값)	2.04	1.68	23.10***	23.70**
각급 학교				
중학교	12.01	10.71	16.54	16.40
인문고교	13.06	11.40	16.75	16.99
실업고교	10.10	8.66	15.25	14.92
전문대학	11.62	10.00	16.33	16.86
대학교	12.74	10.47	17.90	18.05
직업훈련원	11.31	10.06	15.63	14.92
(F값)	22.28***	18.39***	42.48***	61.05***
형제 서열				
독자	12.35	10.81	16.55	16.59
첫째	12.45	11.08	16.76	16.77
중간	11.65	9.85	16.28	16.43
막내	11.88	10.21	16.55	16.36
(F값)	4.35**	11.11***	3.36*	2.65*
가족 소득				
71만원 이하	9.70	8.55	15.66	15.56
72~95만원	10.57	8.94	16.32	16.25
96~119만원	11.84	10.11	16.51	16.51
120~143만원	12.29	10.43	16.64	16.64
144~167만원	12.53	10.86	16.52	16.52
168~239만원	13.18	11.56	17.0	17.09
240만원 이상	13.26	11.79	17.05	16.91
(F값)	28.69***	27.60***	10.42***	8.62***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14.85	12.77	17.40	17.38
사무직	12.54	11.09	16.75	16.55

사회·인구학적 변수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부모기대 학력	본인희망 학력
판매·서비스직	11.62	10.21	16.28	16.46
생산직	9.92	8.7	16.07	15.95
농림어업직	8.92	7.59	15.96	15.83
미취업 (F <sub>欲</sub> )	12.07 140.91***	10.05 109.00***	16.14 19.59**	16.43 17.70***
거주 지역				
서울	13.78	12.19	16.86	16.70
인천·경기·강원	11.33	10.08	16.31	16.34
대전·충남·충북	11.91	9.97	16.91	16.87
광주·전남·전북	10.97	9.09	16.22	16.22
대구·경북	11.48	9.84	16.55	16.73
부산·경남	11.57	10.11	16.44	16.36
(F <sub>欲</sub> )	27.03***	31.48***	4.13**	2.76*
성장 지역 규모				
대도시	13.15	11.50	16.88	16.89
중소도시	12.16	10.41	16.46	16.36
읍	10.41	9.01	15.88	15.93
면·이하	8.76	7.54	16.09	15.85
(F <sub>欲</sub> )	108.11***	98.53***	15.08***	15.77***

\*p<.05 \*\*p<.01 \*\*\*p<.001

년 자신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각각 16.58년, 16.52년)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이 대학 졸업을 하는 것을 원하고, 본인들도 대졸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상황은 높은 교육열을 반영한다.

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높고, 아버지 직업이 전문 관리직에 가까울수록 높으며,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높다. 그러나 부모기대 교육수준 및 본인희망 교육수준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대학 졸업 이상이다. 본인희망 교육수준은 취업을 준비 중인 실업고교생과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이 가장 낮은데, 이들도 똑같이 14.92년의 교육을 받는 것. 즉 전문대학 내지 대학 학력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부모기대 교육년수와 본인희망 교육년수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들은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높은 학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학력에서는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머지 변수들에서는 부모들이 기대하는 교육년수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교육년수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비교적 높은 학력을 희망하는 집단은 높은 연령

총, 대학생과 인문고교생, 첫째 자녀, 고소득층,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관리직,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충북과 서울, 그리고 도시 출신으로 집약된다.

이처럼 높은 교육열이 한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취업 기회와 그에 걸맞는 형태의 직업교육의 모색이 필요하다.

## 2. 직업

직업은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획득하는 사회적 지위 중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청소년들이 갖기를 원하는 직업은 그들의 장래 준비집단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표 6-3>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직업 및 청소년들 자신이 갖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보여준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직업과 청소년이 갖기를 희망하는 직업은 전문직이 대부분이다. 부모기대 직업은 교사(13.9%), 회사원·은행원(12.3%), 변호사·판사·검사·회계사(10.7%), 의사(9.6%), 대학 교수(8.0%), 약사·간호사(4.3%), 엔지니어(4.1%), 고급 공무원(4.1%), 종교인·체육인·예술인(3.8%), 일반 공무원(3.6%), 언론인·방송인(3.3%)의 순이고, 본인희망 직업은 교사(12.9%), 대학 교수(10.1%), 종교인·체육인·예술인(7.8%), 언론인·방송인(7.7%), 회사원·은행원(7.6%), 의사(7.0%), 엔지니어(5.0%), 변호사·판사·검사·회계사(4.8%), 기업체 경영주(3.8%), 약사·간호사(3.8%), 고급 공무원(3.4%)의 순이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과 청소년 자신이 원하는 직업 모두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6-4>는 성별 부모기대 직업과 본인희망 직업 중 빈도가 높은 것을 15가지씩 선정한 것이다. 남자들은 대학 교수, 엔지니어, 의사, 회사원·은행원, 변호사·판사·검사·회계사 등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여자들은 교사, 언론인·방송인, 종교인·체육인·예술가, 회사원·은행원, 대학 교수 등을 원하는 비율이 높다.

성별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사회적 위신이 높고, 일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며, 신기술(new technology)을 활용하는 전문직 중심의 직업을 주로 희망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졸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고학력과 전문직을 원하는 태도는 한국 청소년의 강한 성취동기를 여실히 나타내는데, 이는 한국이 보유한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 자본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표 6-3〉 부모기대 직업 및 본인희망 직업

순위	부모기대 직업	%	본인희망 직업	%
1	교사	13.9	교사	12.9
2	회사원, 은행원	12.3	대학교수	10.1
3	변호사, 판·검사, 회계사	10.7	종교인, 체육인, 예술인	7.8
4	의사	9.6	언론인, 방송인	7.7
5	대학교수	8.0	회사원, 은행원	7.6
6	약사, 간호사	4.3	의사	7.0
7	엔지니어	4.1	엔지니어	5.5
8	고급공무원	4.1	변호사, 판·검사, 회계사	4.8
9	종교인, 체육인, 예술인	3.8	기업체 경영주	3.8
10	일반공무원	3.6	약사, 간호사	3.8
11	언론인, 방송인	3.3	고급공무원	3.4
12	기업체 간부	2.1	연구원, 기타전문직	2.8
13	기업체 경영주	2.0	일반공무원	2.7
14	숙련공 기능공	1.8	숙련공 기능공	2.6
15	연구원, 기타전문직	1.2	기업체 간부	1.9
16	사회단체 직원	1.1	영관이상 군인, 경정이상 경찰	1.2
17	영관이상 군인, 경정이상 경찰	1.1	사회단체 직원	1.1
18	사회단체 간부	0.6	위관·하사관, 경감이하 경찰	0.9
19	주부	0.4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0.8
20	위관·하사관, 경감이하 경찰	0.4	기타	0.6
21	기타	0.3	기타 서비스직	0.6
22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0.3	도소매상인 업주	0.6
23	도소매상인 업주	0.3	운전사	0.5
24	운전사	0.2	학생	0.5
25	학생	0.1	사회단체 간부	0.4
26	이·미용실, 세탁소 주인	0.1	주부	0.3
27	부농	0.1	타이피스트	0.3
28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0.1	이·미용실, 세탁소 주인	0.3
29	중농	0.1	이·미용실, 세탁소 종업원	0.2
30	기타사무직	0.1	생산감독	0.2
31	기타관리직	0.1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0.1
32	빈농, 소작농	0.1	기타사무직	0.1
33	소농	0.1	부동산 중개인	0.1
34	부동산 중개인	0.1	농업노동자, 품질꾼	0.1
35	기타 판매직	0.1	외판원	0.1
36	기타 서비스직	0.1	공장근로자	0.1
37	판매점원	0.1	어부, 수산 양식업자	0.1
38	타이피스트	0.1	행상 노점상	0.1
39	공장근로자	0.1	기타판매직	0.1
40	생산감독	0.1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0.1
41	광부	0.1	판매점원	0.1
42	무용답	9.6	빈농, 소작농	0.1
43			부농	0.1
44			견습공, 비숙련공	0.1
45			무용답	6.3

〈표 6-4〉 성별 부모기대 직업 및 본인희망 직업 15가지

순위	남자(N=880)			
	부모기대 직업	%	본인희망 직업	%
1	변호사·판검사·회계사	14.3	대학교수	11.4
2	의사	12.0	엔지니어	9.3
3	대학교수	9.3	의사	8.2
4	회사원·은행원	8.8	회사원·은행원	6.7
5	엔지니어	7.0	변호사·판검사·회계사	6.4
6	교사	5.2	종교인·체육인·예술가	6.6
7	고급 공무원	5.5	기업체 경영주	5.2
8	기업체 간부	3.4	언론인·방송인	5.2
9	기업체 경영주	3.1	교사	5.6
10	숙련공·기능공	3.0	숙련공·기능공	4.4
11	종교인·체육인·예술가	3.6	고급 공무원	4.2
12	일반 공무원	2.8	일반 공무원	2.8
13	언론인·방송인	2.3	연구원·기타 전문직	2.3
14	연구원·기타 전문직	1.3	기업체 간부	2.4
15	약사·간호사	1.1	고급 군인·경찰	1.5

  

순위	여자(N=720)			
	부모기대 직업	%	본인희망 직업	%
1	교사	24.6	교사	21.9
2	회사원·은행원	16.7	언론인·방송인	10.7
3	약사·간호사	8.2	종교인·체육인·예술가	9.2
4	변호사·판검사·회계사	6.3	회사원·은행원	8.8
5	대학교수	6.4	대학교수	8.6
6	의사	6.5	약사·간호사	6.0
7	언론인·방송인	4.4	의사	5.6
8	일반 공무원	4.4	연구원·기타 전문직	3.3
9	종교인·체육인·예술가	4.0	고급 공무원	2.4
10	고급 공무원	2.4	변호사·판검사·회계사	2.8
11	주부	1.0	기업체 경영주	2.1
12	연구원·기타 전문직	1.1	일반 공무원	2.5
13	사회단체 직원	1.5	기타 서비스직	1.1
14	기업체 경영주	0.7	사회단체 직원	1.1
15	사회단체 간부	0.7	기업체 간부	1.4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청소년이 대학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기대하는 직업을 얻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 어떤 청소년이 자신이 기대하는 직업을 얻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을 안고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교육을 “대학 진학을 통한 전문직으로의 진출” 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 말해, 미래의 한

〈표 6-5〉 부모의 직업별 부모기대 직업 및 본인희망 직업

(단위: %)

국 성인들 대다수가 불만스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직업을 끓어 몇 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부모의 직업과 부모기대 직업 및 본인희망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6-5). 아버지·어머니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직업이나 청소년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은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생산직이나 판매·서비스직을 본인 직업으로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크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부모들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6-6>에서 부모기대 직업과 본인희망 직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비교적 그 일치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사무직을 기대 하더라도 44.0%의 청소년은 전문·관리직을 희망하고, 부모가 농림어업직을 기대하더라도 본인은 50.0%가 전문·관리직, 25.0%는 생산직을 희망하며, 부모가 미취업(특히 여자의 경우 주부)을 기대한다고 해도 본인은 64.3%가 전문·관리직, 14.30%는 생산직, 7.1%는 판매·서비스직을 희망하고 있다.

농림어업직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앞으로 농촌이 더욱 공동화될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등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은 이 부문의 인력난이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요컨대 한국 청소년들은 기대 준거집단과 현실적 가능성 사이에 큰 괴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준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가치를 알려주는 청소년 대상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 6-6> 부모기대 직업별 본인희망 직업

(단위: %)

부모기대 직업 본인희망직업	전문· 관리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	생산직	농림 어업직	미취업	전체
전문·관리직	8.9	44.0	26.7	17.6	50.0	64.3	78.2
사무직	5.2	46.9		2.9		14.3	13.2
판매·서비스직	1.7	4.7	66.7			7.1	3.0
생산직	1.6	1.4		79.4	25.0		3.5
농림어업직	0.2	0.4			25.0		0.3
미취업	1.6	2.5	6.7			14.3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094	277	15	34	4	14	1,438

### 3. 일에 대한 태도

청소년들은 고학력을 원하며, 동시에 전문 관리직 또는 사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농립어업직을 원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으며, 생산직을 기대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매우 낮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가치관은 일 (work)에 대한 태도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일과 관련된 가치관은 成人이 되면서 더욱 공고화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3D(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직종 기피 현상은 이러한 태도의 표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미래의 노동자 의식의 추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들은 “청소년들은 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경동 (1992: 150~161)이 개발한 “일에 대한 태도 척도”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동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이 문항들은 총 24개로 구성되는데, 일의 표출적 (expressive) 측면에 대한 문항 7개, 일의 도구적 (instrumental) 측면에 대한 문항 7개, 일의 규정적 (definitional) 측면에 대한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일의 표출적 측면이란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도덕적·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또는 그가 수행하는 일의 성질이나 업적에 의하여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일컫는 것이고, 일의 도구적 측면은 “일이 몇 가지 제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means)으로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일의 규정적 측면은 “일로 정의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operational definition)”을 가리킨다.

먼저 청소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표 6-7>에 의해 살펴보기로 한다. 각 측면별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표출적 측면은 ① “사람은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96.3%) ② “일을 하되 잘함으로써 일하는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94.9%) ③ “무슨 일엔가 열중하고 있을 때는 잡념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94.6%) ④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진다”(85.6%) 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생활한다고 하기 어렵다”(85.0%) ⑥ “일하지 않으면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할 수 없다”(81.3%) ⑦ “일을 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따분해진다”(77.1%)의 순이고; 도구적 측면에서는 ① “일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친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94.6%) ② “사회적 지위를 얻자면 그에 필요한 일을 하여야 한다”(93.6%) ③ “단지 먹고 살기 위

〈표 6-7〉 일에 대한 태도

(단위: %)

태 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무응답	계
사람은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9	9.2	15.4	15.6	56.2	0.8	100.0
무슨 일엔가 열중하고 있을 때는 잡념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4.2	11.9	16.8	22.6	43.3	1.2	100.0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친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3.1	10.4	25.5	26.9	31.7	2.4	100.0
일을 하되 잘함으로써 일하는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4.1	14.6	23.4	20.9	35.9	1.0	100.0
사회적 지위를 얻자면 그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4.9	13.1	24.3	22.7	33.5	1.5	100.0
반드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이룩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3.9	15.3	25.3	21.5	32.8	1.3	100.0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이다	8.0	19.0	26.3	18.1	26.7	2.0	100.0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생활한다고 하기 어렵다	13.1	22.6	22.8	18.0	21.7	1.9	100.0
직업이 곧 일이다	14.1	24.4	24.4	15.6	19.7	1.8	100.0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 아니라 좀더 잘 살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일의 주목적이다	15.7	22.3	25.0	16.6	19.4	1.1	100.0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12.2	29.2	21.9	14.6	19.9	2.2	100.0
일하지 않으면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할 수 없다	17.3	25.0	23.1	14.4	18.8	1.4	100.0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로 부터 고립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17.1	29.1	22.7	14.1	15.7	1.3	100.0

태 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무응답	계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일이다	15.5	29.9	26.9	13.3	12.6	1.7	100.0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21.6	24.6	24.1	13.0	15.3	1.5	100.0
일을 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따분해진다	20.9	32.3	20.8	11.4	12.6	2.0	100.0
일은 노는 것의 반대이다	29.3	26.3	18.7	9.9	13.9	1.9	100.0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일의 주목적이다	25.9	30.6	20.8	9.9	11.4	1.4	100.0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일이다	28.8	30.1	22.5	8.1	9.0	1.6	100.0
보수를 받고 하는 활동이 일이다	31.8	27.3	20.9	9.1	9.1	1.8	100.0
일은 쉬는 것의 반대이다	33.0	28.8	17.9	8.8	9.6	2.0	100.0
몸을 움직여 하는 것이 일이다	34.6	30.8	18.8	6.9	7.2	1.6	100.0
일이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39.9	26.9	15.6	6.8	9.3	1.5	100.0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이다	36.8	31.1	17.7	5.5	6.8	2.2	100.0

해서가 아니라 좀더 잘 살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일의 주목적이다” (83.3%) ④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생활을하게 된다” (81.6%) 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76.9%) 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일의 주목적이다” (72.7%) ⑦ “보수를 받고 하는 활동이 일이다”(66.4%)의 순이며: 규정적 측면을 보면 ① “반드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이룩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94.8%) ②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이다”(90.0%) ③ “직업이 곧 일이다”(84.2%) ④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일이다”(82.8%) ⑤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일이다”(69.6%) ⑥ “일은

노는 것의 반대이다"(68.8%) ⑦ "일은 쉬는 것의 반대이다"(65.0%) ⑧ "몸을 움직여 하는 것이 일이다"(63.8%) ⑨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이다"(61.1%) ⑩ "일이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58.6%)의 순이다. 대체적으로 동의도 서열(agreement percentage rank)의 최상위를 차지한 것은 표출적 측면들이며, 도구적 측면이 그 다음, 그리고 규정적 측면은 하위의 서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을 하는 것에 어떤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여 일을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일을 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사귀며 친밀하게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돈을 벌 수 있으며,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일이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본 조사연구에서는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를 세분하였으므로, 정보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0, "조금 그렇다"를 1, "꽤 그렇다"를 2, "대단히 그렇다"를 3, "전적으로 그렇다"를 4의 값으로 재부호화하여, 각 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표 6-8>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표 6-7>에서 살펴보았던 동의도와 함께, 응답 척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1967년 실업고교생 조사의 동의도를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한 순위는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에 대한 각 태도의 동의도 점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약간의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조사 결과는 일의 사회학(sociology of work) 분야의 기존 연구 성과들과 일치하는 경향이며(Gross, 1965; Morse and Weiss, 1955; Weiss and Kahn, 1960), 1967년에 대구 경북 지역의 실업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이다(김경동, 1992: 153).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항으로 청소년의 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 산만하다. 그래서 일에 대한 태도 문항들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6-9>는 분산극대화 방식으로 직교회전을 한 후 고유값이 1 이상인 네 가지 요인을 추출한 결과이다. 요인 1은 다양한 활동(various activities)을 의미하는 일의 규정적 측면을 주로 반영하고, 요인 2는 심리적 혼신몰입(psychological commitment)으로서 일의 표출적 측면 중 개인적 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요인 3은 일의 사회적 표출성(social expressiveness)으로 파악되고, 요인 4는 일의 지위획득 도구성(status attainment instrumentality)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백분율을 보면 다양한 활동의 측면(요인 1)이 23.7%, 심리적 혼신몰입의 측면(요인 2)이 11.4%, 사회적 표출성의 측면

〈표 6-8〉 일에 대한 태도 점수와 동의도

순위	일에 대한 태도	태도 점수		동의도 (%)	1967년 동의도 (%)
		평균	표준편차		
1	사람은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3.14	1.16	96.3	89.0
2	무슨 일엔가 열중하고 있을때는 잡념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2.90	1.21	94.6	85.4
3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친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27.6	1.11	94.6	58.9
4	일을 하되 잘함으로써 일하는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2.71	1.22	93.6	79.0
5	사회적 지위를 얻자면 그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2.68	1.21	93.6	79.0
6	반드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이룩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2.65	1.20	94.8	82.1
7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이다	2.37	1.29	90.0	74.3
8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생활한다고 하기 어렵다	2.13	1.35	85.0	63.4
9	직업이 끈 일이다	2.02	1.34	84.2	65.3
10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일의 주목적이다	2.02	1.35	83.3	77.1
11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2.01	1.33	85.6	83.0
12	일하지 않으면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할 수 없다	1.92	1.36	81.3	77.0
13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1.82	1.32	81.6	66.7
14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일이다	1.77	1.24	82.8	73.4
15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1.76	1.35	76.9	52.6
16	일을 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따분해진다	1.62	1.29	77.1	69.5
17	일은 노는 것의 반대이다	1.52	1.38	68.8	41.1
18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일의 주목적이다	1.50	1.29	72.7	53.6
19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일이다	1.37	1.24	69.6	42.1
20	보수를 받고 하는 활동이 일이다	1.35	1.27	66.4	21.9
21	일은 쉬는 것의 반대이다	1.32	1.29	65.0	32.3
22	몸을 움직여 하는 것이 일이다	1.20	1.20	63.8	40.3
23	일이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1.17	1.29	58.6	17.8
24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이다	1.12	1.18	61.1	37.7

주: 1) '일에 대한 태도'를 제시한 순위는 태도 점수 값이 높은 순서이다.

2) 태도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0, "조금 그렇다"를 1, "꽤 그렇다"를 2, "대단히 그렇다"를 3, "전적으로 그렇다"를 4의 값으로 재부호화하고, 무응답을 결측값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3) 동의도는 "조금 그렇다", "꽤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에 응답한 백분율이다.

4) 1967년 동의도는 "대단히 찬성한다"에서부터 "대단히 반대한다"에 이르는 5점 척도 중에서 찬성 쪽에 응답한 백분율이다. 인용된 수치는 김경동, "관리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과 직업관,"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1992, p.153에서 구하였다.

〈표 6-9〉 '일에 대한 태도 점수'를 직교회전한 후의 요인행렬표

요인	일에 대한 변수 태도들	전체 동위도 순위	요인 부하값				공통 분산비 ( $h^2$ )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 인 1	① 몸을 움직여 하는 것이 일이다	22	.761	.061	.051	.017	.586
	②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이다	24	.727	-.010	.044	.021	.531
	③ 일은 노는 것의 반대이다	17	.640	.149	.058	.033	.437
	④ 보수를 받고 하는 활동이 일이다	20	.627	.013	.015	.237	.449
	⑤ 일은 쉬는 것의 반대이다	21	.600	.053	.096	.052	.375
	⑥ 일이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23	.568	-.031	.089	.088	.339
	⑦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일이다	19	.501	.024	.137	.257	.337
요 인 2	① 무슨 일엔가 열중하고 있을때는 집념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001	.721	.196	-.090	.567
	② 사람은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1	-.100	.690	.122	.148	.523
	③ 일을 하되 잘함으로써 일하는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4	.196	.685	.014	.047	.510
	④ 반드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이룩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6	-.002	.586	.274	.237	.475
	⑤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친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3	.111	.532	.286	.179	.409
	⑥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이다	7	.079	.480	.192	.293	.360
요 인 3	① 일을 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따분해진다	16	.090	.086	.743	-.084	.574
	②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13	.088	.131	.706	.203	.564
	③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11	.063	.235	.614	.060	.440
	④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생활한다고 하기 어렵다	8	.151	.268	.535	.199	.420
	⑤ 일하지 않으면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할 수 없다	12	.068	.178	.530	.325	.423
요 인 4	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잘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일의 주목적이다	10	.023	.144	.089	.688	.494
	② 사회적 지위를 얻자면 그에 필요한 일을 해 야 한다	5	-.025	.441	.141	.523	.489
	③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일의 주목적이다	18	.388	-.012	.027	.515	.417
	④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15	.294	.118	.119	.501	.366
	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일이다	14	.140	.198	.332	.392	.322
	⑥ 직업이 곧 일이다	9	.310	.247	.238	.388	.364
고유값			5.684	2.725	1.235	1.125	
설명하는 분산의 백분율(%)			23.7	11.4	5.1	4.7	
설명하는 분산의 누적 백분율(%)			23.7	35.0	40.2	44.9	

(요인 3)이 5.1%, 지위획득 도구성의 측면(요인 4)이 4.7%로 나타나. 이 네 개의 요인들이 일에 대한 태도의 44.9%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네 개의 요인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6-10). 분석에 사용된 '일에 대한 태도'는 네 개의 요인 점수들인데, 그것들은 각각에 해당되는 문항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것으로, 0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은 "조금 그렇다", 2는 "꽤 그렇다", 3은 "대단히 그렇다", 4는 "전적으로 그렇다"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일을 어느 정도 다양한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일의 여러 가지 차원을 크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일을 다양한 것으로 파악하는 정도가 높고, 각급 학교별로는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 실업고교생, 중학생, 전문대학생은 일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파악하지만, 대학생과 인문고교생은 그 정도가 낮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가 미래의 현실에서 하게 될 일을 크게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대학생이 일의 다양성을 가장 작게 인정한다"는 점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가족 소득별로는 95만원 이하의 비교적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파악하고, 성장지역 규모별로는 읍·면 이하 농촌 청소년들이 일을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일이 개인의 심리적 현신몰입을 나타낸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일이 심리적 현신몰입을 나타낸다는 점에 상대적으로 크게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소득별로는 120~130만원의 중간 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의 심리적 현신몰입 측면을 상대적으로 크게 파악하고 있다.

셋째, "일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통하여 개인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크게 인정하고 있다.

넷째, "일이 사회적 지위획득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점"은 실업고교생, 전문대학생, 직업훈련원·직업학교생이 대학생·중학생·인문고교생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일의 심리적 현신몰입 측면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으로는 지위획득 도구성과 사회적 표출성 및 다양한 활동의 측면의 순으로 본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태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다양한 활동, 심리적 현신몰입, 사회적 표출성, 지위획득 도구성의 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6-10〉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일에 대한 태도 요인 점수

사회·인구학적 변수	다양한 활동 (various activities)	심리적 헌신몰입 (psychological commitment)	사회적 표출성 (social expressiveness)	지위획득 도구성 (status attainment instrumentality)
전체	1.29	2.75	1.90	1.96
성				
남자	1.34	2.69	1.91	1.94
여자	1.23	2.83	1.89	1.99
(t값)	2.71**	-3.54***	0.61	-1.16
연령				
13~15세	1.39	2.75	1.84	1.92
16~18세	1.27	2.75	1.88	2.03
19~21세	1.16	2.73	1.96	1.94
22~24세	1.15	2.81	2.17	1.88
(F값)	5.29**	0.38	4.52**	1.81
각급 학교				
중학교	1.40	2.74	1.84	1.93
인문고교	1.19	2.78	1.91	2.01
실업고교	1.40	2.78	1.84	2.06
전문대학	1.32	2.73	2.01	2.06
대학교	1.00	2.75	2.00	1.82
직업훈련원	1.52	2.69	2.02	2.05
(F값)	11.06***	0.32	1.48	3.47**
형제 서열				
독자	1.53	2.69	1.78	1.93
첫째	1.24	2.80	1.93	1.99
중간	1.29	2.71	1.82	1.92
막내	1.31	2.74	1.93	1.97
(F값)	1.13	0.86	2.05	0.87
가족 소득				
71만원 이하	1.42	2.65	1.81	1.89
72~95만원	1.41	2.76	1.87	2.00
96~119만원	1.20	2.72	1.88	1.93
120~143만원	1.33	2.90	1.93	1.99
144~167만원	1.19	2.70	1.92	1.93
168~239만원	1.20	2.79	1.93	1.98
240만원 이상	1.30	2.71	2.00	1.97
(F값)	3.07**	2.18*	0.89	0.44

사회 · 인구학적 변수	다양한 활동	심리적 혁신몰입	사회적 표출성	지위획득 도구성
아버지 직업				
전문 · 관리직	1.21	2.75	1.98	1.92
사무직	1.25	2.85	1.94	2.02
판매 · 서비스직	1.27	2.80	1.89	1.98
생산직	1.38	2.67	1.83	1.95
농림어업직	1.35	2.74	1.82	2.00
미취업	1.36	2.63	1.93	1.98
(F <sub>값</sub> )	1.37	1.67	1.36	0.47
거주 지역				
서울	1.31	2.77	1.94	1.96
인천 · 경기 · 강원	1.27	2.83	1.89	1.96
대전 · 충남 · 충북	1.22	2.79	1.92	2.00
광주 · 전남 · 전북	1.24	2.74	1.90	1.98
대구 · 경북	1.30	2.73	1.80	1.95
부산 · 경남	1.35	2.64	1.91	1.93
(F <sub>값</sub> )	0.75	1.12	0.61	0.17
성장 지역 규모				
대도시	1.28	2.75	1.93	1.95
중소도시	1.18	2.78	1.92	1.97
읍	1.45	2.70	1.83	1.95
면 이하	1.33	2.77	1.83	2.03
(F <sub>값</sub> )	4.93**	0.07	0.82	0.64

\*p<.05 \*\*p<.01 \*\*\*p<.001

## VII. 맺음말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삶의場은 주로 가정과 학교 및 여가로 이루어지므로, 이 각각에서 청소년들의 생활과 더불어 전통예절에 대한 태도와 교우관계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필자들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수준 · 직업 및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가정은 소가족화 ·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으며, 개인화의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전통적 생활 태도 중에서 가부장제적 요소는 혁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우월주의” 및 “선생님에 대한 일방적 복종”과 같은 태도는 배격하고 있고, “장남의 부모 봉양” 및 “확대가족 선호”는 그 가치가 많이 약화되었으며, “국가보다는 가족

과 자기 위주의 삶”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족의 체면을 중시하는 풍조”는 크게 쇠퇴하였지만 동의하는 청소년이 상당히 남아 있다. 반면, 청소년들은 전통적 생활 태도 중 연령 위계제적 요소는 계승·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이웃 어른에 대한 인사”나 “버스 자리 양보”와 같은 전통적 생활 태도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천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이유로 공부 외적인 요인들 특히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학교에 가는 것이 삶은 이유로는 공부와 수업 부담과 관련된 것을 주로 언급한다. 청소년은 대략 5명 정도의 친구가 있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고, 알기 쉽게 가르치며, 절은 엄하지만 속은 따뜻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며, 유머있는” 선생님을 좋아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공부·성적과 진로에 대하여 고민한다. 청소년들의 고민 해소를 위해서는,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활力있는 학교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더불어,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은 대략 2시간 20분 정도로 비교적 긴 편인데, 이들이 그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대중 매체를 접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허락된다면 여행을 하고 싶어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월 5만 6천 원 정도의 용돈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분식점 등에서 음식값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돈액수는 극히 적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여가 생활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시간과 돈 및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데서 찾는다.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청소년의 여가 생활을 위하여 확충되어야 할 공간·시설로는 남자는 체육시설을, 여자는 공연장을 원한다.

넷째, 교육과 직업 및 일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의 장래 준거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이 대학 졸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청소년들도 한결같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원하고 있다. 또한 희망하는 직업도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고학력과 전문직을 원하는 태도는 한국 청소년의 강한 성취동기의 표출로서,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 자본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은 일에 대한 태도에서도 매우 건전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에 대한 태도 척도는 다양한 활동, 심리적 혁신몰입, 사회적 표출성, 지위획득의 도구성이라는 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요인들 중 단연 가장 높은 긍정치를 얻고 있는 것이 “심리적 혁신몰입”이다. 심리적 혁신몰입은 일에 열중하는 것 자체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

고 심리적 만족감을 갖는 태도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에게서 막스 베버 (Weber, 1955)가 말하는 소명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차라리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청소년들의 가정 생활은 개인 지향적인 태도를 탈피하고 보다 공동체 지향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은 공부·성적 및 진학 뿐 아니라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는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따뜻한 배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 생활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중 매체, 특히 텔레비전·비디오와 같은 영상 매체는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하고, 정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과 공연장 등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한편, 청소년들이 고학력·전문직만을 선호하여 준거집단을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데, 노동시장에서의 학력별·직종별 차별을 없애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경구를 현실에서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현두·홍두승·강명구

1989 『공단 청소년 문화현상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육부 중앙교육평가원

1991 『1991년 교육통계연감』. 서울: 교육부 중앙교육평가원.  
권태환·박영진

1993 『한국의 가구 및 가족유형』. 서울: 통계청.  
김경동

1979 “한국 근로자와 관리자의 직업의식과 노사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의 개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3): 1~10.

1983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서울: 한울.

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김광웅

1993 “청소년이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24: 1423~1458.  
김기웅

1994 “농촌 청소년과 여가.” 김동일 외, 『한국 농촌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pp. 223~243.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김동일 외

1994 『한국 농촌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  
제연구소.

김일철

1993 “한국인의 행위 모형: 기본 예절로서의 ‘점잖다’를 중심으로.” 『사회과  
학과 정책연구』 15(3): 97~113.

## 설동훈

- 1993 “한국 농촌의 가족 구성과 생활실태.” 『농촌사회』 3: 157~184.  
 송광성 · 이종원 · 김범준 · 김하연  
 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정원식 · 김경동 · 김신일 · 배규한 · 최일섭  
 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명한 · 김경동 · 강현두  
 1993 『청소년 문화정서지표 조사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

## 조홍식

- 1994a “청소년 정책과 가족.” 한국가족학회 편. 『현대 가족과 사회』. pp.  
 304~327. 서울: 교육과학사.  
 1994b “미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현황과 성격.” 『사회복지연구』 5: 141~  
 167.

## 체육청소년부

- 1992 『청소년백서, 1992년』. 서울: 체육청소년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1985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91 MBC 청소년 백서』. 서울: (주)문화방송.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 1992 『청소년 문화의 실상과 과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학교명람편찬회

- 1993 『한국학교명람, 1992~1993』. 서울: 한국학교명람편찬회.

## 한완상

- 1974 『현대 사회와 청년문화』. 서울: 법문사.

## Adamski, Wladyslaw, and Peter Grootings

- 1989 *Youth, Education and Work in Europe*. London: Routledge.

## Andrews, Frank M., and Stepan Withey

-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 Plenum Press.

## Andrews, Frank M., and Stepan Withey (eds.)

- 1986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Ann Arbor,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The University of Michigan.

## Bourdieu, Pierre

-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Dubin, R.

- 1956 “Industrial Workers’ World: A Study of the Central Life Interests  
 of Industrial Workers.” *Social Problems* 3: 131~142.

## Gerson, Elihu M.

- 1976 “On the Quality of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5):  
 793~806.

## Goldthorpe, John H.

- 1980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Gross, Edward  
1965 *Industry and Social Life*. Dubuque, Iowa: W. M. C. Brown.
- Morse, Nancy C., and Robert S. Weiss  
1955 "The Function and Meaning of Work and the Job."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 191~198.
- Nosow, S., and William H. Form (eds.)  
1962 *Man, Work and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 Orzack, L.H.  
1959 "Work as a Central Life Interest of Professionals." *Social Problems* 7: 125~132.
- Weber, Max  
1955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Scribners.
- Weiss, Robert S., and A.L. Kahn  
1960 "Definitions of Work and Occupation." *Social Problems* 8: 142~151.
- Wylson, A.  
1980 *Design for Entertainment*. Boston: Butter Worth.